

2191
340.9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初等學校教科書에 反映된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分析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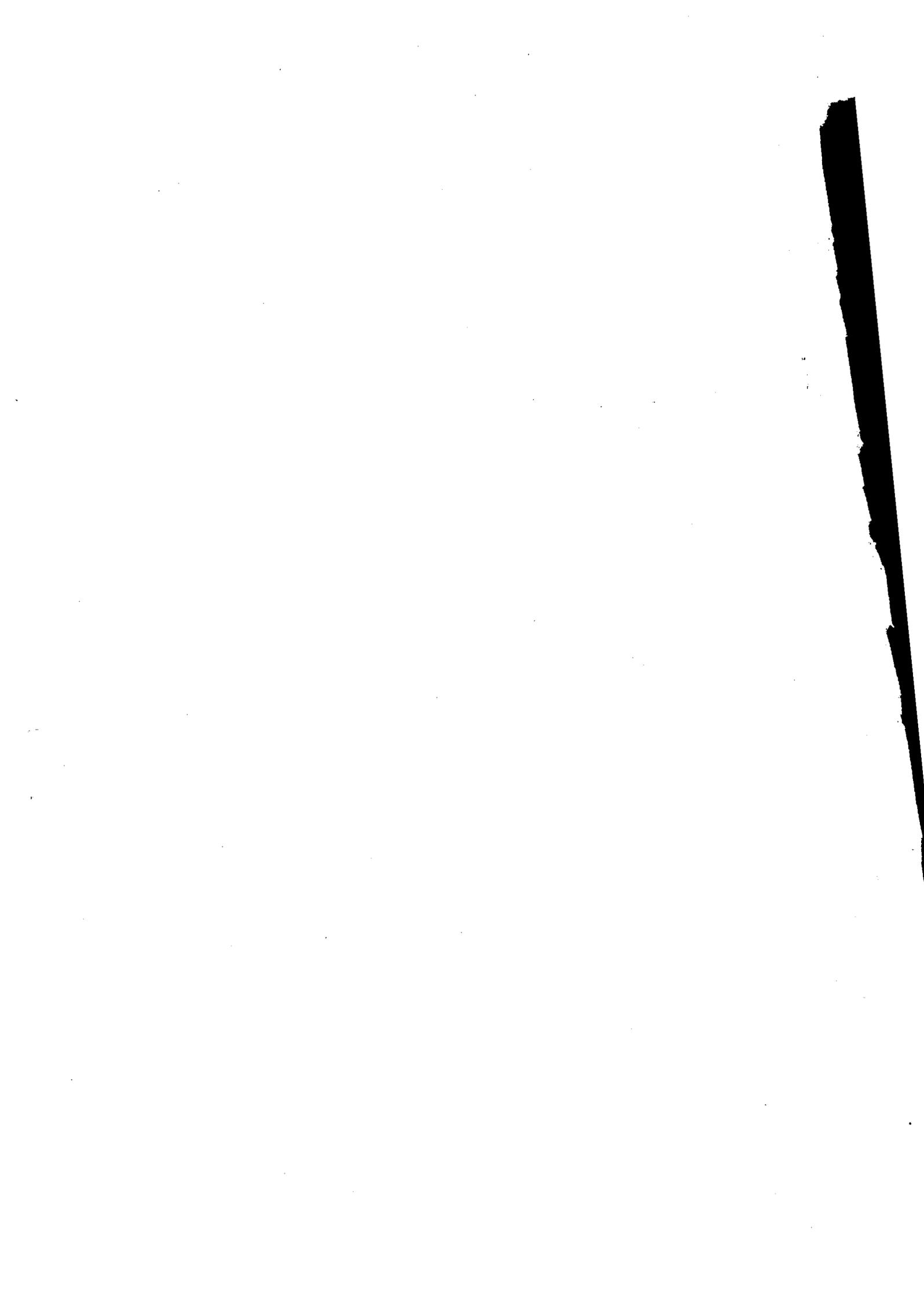
AN ANALYTICAL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NTI-COMMUNISM EDUCATION CONTENT OF ELEMENTARY SCHOOL TEXT BOOK

研究執筆責任 **朴 容 憲**
(略歷) 서울大學校 師大 卒 (1957)
美 마이아미大 教育社會學 專攻 (1960)
美 노스웨스턴大 教育社會心理學 專攻
哲學博士 (1963)
서울大 師大 助教授
現 서울大 大學院 國民倫理教育科長

刊行責任 **朴 聖 勳**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要

約

1. 研究 課題名

初等学校 教科書에 反映된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 分析

2. 研究目的

- (1) 統一・反共政策이 教育에 反映되는 如否와 反映程度의 分析
- (2) 統一・反共教育内容에 關한 教育課程의 變遷過程 分析
- (3) 統一・反共教育目標의 變遷過程 分析
- (4) 統一・反共教育内容의 變遷過程 分析
- (5) 統一・反共教育의 目標와 内容間의 一貫性 如否分析
- (6) 統一・反共教育의 学年別 系列性과 連繫性分析
- (7) 統一・反共教育・改善을 위한 示唆点 分析

3. 研究方法

1) 文献分析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과 그 教育課程의 變遷過程을 살피기 위해 解放後부터 오늘날 까지를 時期的으로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区分하여 各時期 区分別 變遷의 主要特徵을 中心으로 文献을 蒐集 分析하였다.

第 1 期； (建国 ~ 6.25)

第 2 期； (1951 ~ 1961)

第 3 期； (1962 ~ 1971)

第 4 期 ; (1972 ~ 現在)

수집분석 대상자료는 주로 国土統一院 발간의 南北關係 資料와 外務部 발간의 外交年表 各 時期区分에 따른 文敎部發刊의 教育課程과 教育課程의 變遷에 關한 著書들이다.

2) 教科書 分析

- 豫想되는 主題를 反共領域과 勝共統一領域으로 나누어 그 주제에 따른 目標를 設定하고 그 主題 및 目標에 따라 分析카드를 構案하고 各 豫想主題가 教科書 內容에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 分析의 對象이 된 教科書는 총 46 卷으로 國民學校 各 年級 生活 教科書를 中心으로 삼았으며 그 時期는 1955 年以後 부터 現在까지의 모든 教科書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4. 分析 結果 및 해석

1) 文獻 分析 結果

가. 統一·反共 政策의 變遷過程

統一政策 및 統一方案의 變遷過程은 그 段階에 따라 4 期로 나누어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時 期 区 分	主 要 政 策 内 容
第1期： 建国後～6.25動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共・武力 統一政策 ○ 北韓地域만의 代表選出을 위한 選挙實施提議
第2期： 6.25動乱後～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獨立 民主韓國建設 ○ U.N 監視下 南北韓 総選實施提議
第3期： 1962～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 ○ 平和的 統一基盤造成을 爲한 国力培養 ○ U.N. 監視下, 土着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韓 自由総選挙實施提議
第4期： 1972～現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相互 不可侵 協定提議 ○ 平和定着・交流・総選 등 平和統一基本政策

나. 統一・反共教育의 教育課程 變遷過程分析

4期로 区分한 時期別로 統一 및 反共教育 政策의 變遷過程을 特徴적으로 要約하여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時 期 区 分	主 要 教 育 政 策 内 容
第 1 期： 建 国 後 ~ 6.25 動 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 主 市 民 教 育 의 強 調 ○ 民 族 的 独 立 自 存 意 識 의 強 調 ○ 目 標 水 準 에 서 統 一 · 反 共 教 育 内 容 言 及 없 음 (民 主 · 民 族 的 独 立 의 強 調 로 反 共 · 統 一 教 育 을 間 接 的 으 로 表 現)
第 2 期： 1951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滅 共 求 国 精 神 의 涵 養 ○ 反 共 思 想 教 育 을 道 義 教 育 에 서 言 及
第 3 期： 1962 ~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 共 을 第 1 의 国 是 로 함 ○ 道 德 教 科 中 反 共 教 育 強 化
第 4 期 1972 ~ 現 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 極 的 反 共 教 育 에 서 積 極 的 統 一 教 育 으 로 轉 換 ○ 国 力 培 養 과 總 和 團 結 로 平 和 的 統 一 基 礎 造 成

2) 教科書 內容 分析

統一。反共教育에 關한 教科書 內容의 變遷過程을 1955年度 以後 時期別 特徵을 中心으로 要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時期 区分	特 記 內 容	빈 도
第1期 ; (1955~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애경심 6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4 ○ 북괴의 6.25 남침과정 2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 실정비교 1 ○ 원호 정신 고취 1 ○ 세계여러나라의 반공투쟁 1 ○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1 ○ 의무이행 (통일을 위한 노력) 1 ○ 이산가족 상봉 1 ○ 북한동포 구출 1 	
第2期 ; (1962~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18 ○ 공산북한의 비참상 18 ○ 국군에 대한 애경심 14 ○ 북한 동포의 구출 11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5 ○ 민주·공산 비교 5 ○ 유우엔군에 대한 감사 4 	

時 期 区 分	特 記 内 容	빈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원호 정신 고취 ○ 소련 공산당의 만행 	<p>4</p> <p>4</p> <p>2</p>
第 3 期 ; (1966~72)	<p>※ 위와 같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 군인에 대한 애경심 (베트남을 도운 대한) ○ 무장공비들의 만행 (1.21 사태 후) (김신조일당, 울진·삼척 공비만행) 	<p>8</p> <p>8</p> <p>4</p>
第 4 期 ; (197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최악상폭로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북한의 비참상 ○ 무장공비들의 만행 ○ 민주·공산 비교 ○ 예비군, 민방위대의 필요성 ○ 방위성금, 국가의 중요성 ○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성 비판 	<p>9</p> <p>7</p> <p>7</p> <p>7</p> <p>4</p> <p>4</p> <p>3</p> <p>2</p> <p>2</p>

3) 綜合比較分析

○ 時期別로 統一政策과 反共教育政策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時 期	統 一 政 策	教 育 政 策
第 1 期 (建國~6.25)	○ 反共 · 武力統一政策	○ 反共 · 統一教育目標 提示 없음
第 2 期 (1951~1961)	○ 統一獨立 民主韓國開侵 ○ U.N. 監視下 南北總選 提議	○ 滅共求國精神의 함양 ○ 反共思想고취
第 3 期 (1962~1971)	○ 平和的 統一政策 ○ 反共의 國是化	○ 反共教育強化 ○ 統一政策의 反映未洽
第 4 期 (1972~현재)	○ 段階的 平和統一政策 (三大 基本原則 提示)	○ 積極的 統一教育에의 轉 換 ○ 國力增強 및 總和團結

- 1945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동안의 反共에 관한 教育目
標는 찾아볼 수 없었다.
- 6.25 動亂 이후부터 反共政策이 教育目標에 反映되기 始作
하였다.
- 統一에 대한 政策이 教科書內容에 反映되기 始作한 것은
1973年度 教科書 改編以後이다.

4. 結 論

- (1) 統一。反共教育의 內容은 統一政策과 教育目標를 体系的으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 (2) 統一。反共教育의 內容이 国内外 情勢變動에 민감하게 反應하지 못하고 있다.
- (3) 統一。反共教育의 目標가 初等學校 教育水準에 맞게 具体化되고 体系化되어 있지 못하다.
- (4) 統一。反共教育內容에 感情的 次元을 強調하는 內容의 比重이 압도적이며 그 다음이 行動的 次元의 內容들이다.
- (5) 統一。反共教育 內容에서 認知的 次元이 크게 缺如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感情을 자극하는 內容은 많고 반복되고 있으나 思考를 자극하여 判斷하게 하는 內容이 적다.
- (6) 統一。反共教育內容水準이 다른 教科內容에 비해 낮다.
- (7) 事實에 입각한 知的情報提供을 위한 內容이 크게 缺如되어 있다.

目 次

I . 緒 論	3
1 . 研究의 目的	3
2 . 研究의 方法	4
가 . 文献分析方法	5
나 . 教科書內容分析方法	6
II . 分析結果 및 解釈	12
1 . 文献分析結果	12
가 .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 分析	12
나 . 統一·反共教育의 教育課程 變遷過程 分析	19
2 . 教科書 內容 分析	33
3 . 綜合 比較 分析	61
III . 結論 및 建議	87
1 . 要略 및 結論	87
2 . 建 議	92

I . 緒 論

1 . 研究目的

政治的 環境의 變化는 教育環境의 變化를 뜻하며 教育環境의 變化는 教育의 目標와 內容에 修正을 要求한다 . 特히 우리나라 政治教育의 重要한 영역을 차지하는 統一教育내지 反共教育은 政治的 環境의 變化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

祖國이 양단된이래 統一을 위한 努力은 繼續되고 있으나 國內外 情勢의 變動으로 統一政策 역시 몇차례 變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러한 變化에 統一내지 反共教育이 어느정도 민감하게 反應하여 젊은세대들의 統一觀과 反共觀의 形成에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本 研究는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分斷 30 餘年동안 우리의 繼續된 統一 成就 努力에도 불구하고 統一問題가 長期化될 前望아래 南北韓間의 對決 樣相은 더욱 多樣化 되고 더욱 激烈화 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젊은世代들 사이에는 統一에 관한 悲觀論 , 無觀心 지나친 樂觀論등이 惹起되고 있어 統一 및 反共에 對한 우리의 總意形成 努力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이러한 傾向을 낳게한 要因은 많은 것이다 . 그중 우리가 그동안 시도해온 統一 · 反共教育도 重要한 要因의 하나일 것이다 . 더우기 統一問題의 長期化는 젊은 세대들의 統一觀과 反共觀에 重要한 意味를 갖게 한다 . 따라서 統一 및 反共에 對한 總意形成에 否定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沮害要素를 除去하고 올바른 統一觀과 反共觀을 形成해야할 教育的 課題의 設定과 効率的 遂行을 爲해서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을 概觀하면서 具體的인 教科書內容을 分析하여 그 改善方向을 모색하는 일은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必要에 따라 遂行되는 本研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 (1) 統一・反共政策이 教育에 反映되는 如否와 反映程度의 分析
- (2) 統一・反共教育에 關한 教育課程의 變遷過程 分析
- (3) 統一・反共教育目標의 變遷過程 分析
- (4) 統一・反共 教育內容의 變遷過程 分析
- (5) 統一・反共 教育의 目標와 內容間의 一貫性 如否 分析
- (6) 統一・反共 教育의 学年別 系列性과 連繫性 分析
- (7) 統一・反共 教育 改善을 爲한 示唆點 分析

2. 研究의 方法

本研究는 研究의 目的에서 提示한 項目들을 分析 檢討하기 爲하여 크게 두 領域의 問題를 取扱하게 된다. 그 하나는 文獻 分析 研究이며 다른 하나는 教科書 內容 分析 研究이다. 前者의 文獻分析研究는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과 統一・反共教育을 위한 教育課程의 變遷過程을 分析하기 爲한 것이며 後者の 教科書內容 分析研究는 統一・反共教育의 內容 變遷過程을 分析하기 爲한 것으로 初等學校 바른생활 教科書를 分析의 對象으로 限定하였다. 이 두 領域의 分析研究를 爲해 사용한 方法을 차례로 說明하기로 한다.

가. 文献分析方法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과 그 教育課程의 變遷過程을 살피기 爲해 解放後부터 오늘날 까지를 時期的으로 다음과 같이 4 段階로 구분하여 各 時期 區分別 變遷의 主要特徵을 中心으로 文献을 蒐集 分析하였다.

第一期 (建國 - 6.25 動亂)

第二期 (1951 ~ 1961)

第三期 (1962 ~ 1971)

第四期 (1972 ~ 現在)

蒐集 分析된 資料는 主로 國土統一院 發刊의 南北關係 資料와 外務部 發刊의 外交年表, 各 時期 區分에 따른 文教部 發刊의 教育課程과 教育課程의 變遷에 關한 著書들이며 그 상세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文献分析資料

1.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

統一院 資料 外交年表

2. 教育目標指針 變遷過程

< 參考文獻 >

국민학교 교과과정	1955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지침	1963	문교부
한국 신 교육사	1964	오천석
교육과정 - 이론과 운영 -	1972	대한교육연합회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4	문교부 (교학도서)
교육과정 연혁조사	1974	함종규
교육과정 해설 및 학습지도의 전개 시리즈 2		
국교 도덕과편	1974	이영택
국민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상세화 연구	1974	한국교육개발원

나. 教科書 內容 分析 方法

ㄱ. 分析 道具의 製作

教科書 內容을 分析하기 위한 道具는 分析目的에 따라 그 形態가 다를 수 있다.

本研究 目的에 부합되는 教科書 分析 模型을 構案하기 爲하여 먼저 <圖表 1>과 같은 主題와 目標을 分類하고 이를 토대로 <圖表 2>와 같은 分析카드를 構案하였다. <圖表 1>과 같이 예상되는 主題와 目標은 I. 反共에 關한 內容 主題와, II. 勝共 統一에 關한 主題로 分類하고 目標은 各 主題가 教科書에 어떻게 取扱되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한 것으로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目標을 意味한다.

그러나 分析 以前에 各 主題에 따라 예상되는 目標을 설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며 實際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目標은 分析카드에 옮겨 記錄 하도록 <圖表 2>와 같은 分析카드가 構案된 것이다. <圖表 2>의 分析카드의 內容과 使用方法을 簡略히 說明해 둔다.

教科書名과 출판사, 출판年度, 学年等을 먼저 기입하고 各教科書에서

設定되어 있는 單元名을 教科書에 記名되어 있는대로 「단원·주제」란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단원·주제」아래 소 주제에는 內容을 가장 잘 表現할수 있는 주제를 內容을 읽고난후 설정하여 기입하고 그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內容을 요약란에 기입하였다. 이 내용요약을 되도록이면 原文 그대로를 옮겨 적었으나 항목별로 기록 하도록 하였다. 분석된 內容에 反映된 內容의 의도 내지 目標을 「목표·의도」란에 기입하고 그 목표를 行動 特性別로 分類하여 (認知的, 情意的, 行動的) 各 特性別에 해당되는 代表的인 表現을 옮겨 적었다. 또한 特異한 表現文은 例로 옮겨 적었으며 各 난에 해당되는 內容의 빈도를 分析 카드 右側란에 記錄하였다.

< 圖表 1 > 分析 模型 構案을 위한 豫想主題 및 目標

주 제	목 표	내 용	표 현	빈 도
I . 反 共				
1 . 이론	1 .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점 이해			
2 . 사적사실 실정 · 사건	2 . 북한의 사적사실 · 실정 사건을 통한 공산주의 비판			
3 . 국가	3 . 공산국가 비판			
4 . 의식	4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5 . 민주 · 공산 비교	5 . 민주 · 공산 비교를 통한 민주주의의 우월성			
II . 승공통일				
1 . 이론	1 . 승공통일의 필요성 통일정책 이해			
2 . 사적사실	2 . 승공통일교육에 이용된 사적 사실			
3 . 국가	3 . 국가 , 국군에 대한 태도			
4 . 의식	4 . 승공통일에 대한 신념			
5 . 과정	5 . 승공통일을 위한 노력			

〈圖表 2〉 분석 카드 드

교과서명		출판사	년도
단원:주제		학 년	페이지
소주제			빈도
주제 및 주요 내용	내용 요약		
	목표의도		
목표분류 (행동특성별)	인지		
	정의		
	행동		
표현			
비고			

ㄴ. 分析对象 教科書

各級學校의 全学年 教科書가 처음으로 발간된 1955年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初等學校 바른생활科 教科書 모두를 分析의 对象으로 삼았으나 수집할 수 없었던 몇권의 教科書는 부득이 分析对象에서 除外 되었다.

蒐集, 分析된 教科書 總數는 46卷이며 年度別·学年別 教科書數는 <圖表 3>에 提示된 바와 같다.

<圖表 3>에서 보는바와같이 教科書 變遷의 時期区分은 4期로 나누었으나 이 区分은 教育過程의 變遷時期区分과 다르다. 그 까닭은 教科書 改編이 教育課程 改編 數年後에 이루어지게 되며 때로는 教育課程의 改編없이 教科書 內容은 부분적으로 改編되는등 그 時期가 一致하지 않기 때문이다.

教育課程 變遷期의 第1期에 해당되는 建國以後 6.25 動亂까지의 時期에 사용된 教科書 내지 教材는 한권도 수집할 수가 없어 分析 对象에서 除外되었으며 教科書 內容 變遷 分析의 第1期로 区分한 1955 ~ '51에 8卷 第2期에 20卷 第3期에 6卷 第4期에 12卷등 總 46卷의 教科書를 分析 对象으로 삼았다. 特記할 것은 第2期로 区分한 1962年度 부터 1966年度 사이에 年度別로 2個学年의 教科書를 改編한 점이다. 5.16 革命後인 1963年度에 教育課程을 改編한後 教科書를 年次的으로 改編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第3期로 区分한 1967年度부터 1969年 사이에 教科書를 部分的으로 修定하게 되었으며 第4期에 해당되는 1973年度에 教育課程이 全面的으로 改定되면서 教科書 역시 전면 改定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圖表 3 > 年度別, 學年別 分析對象 教科書의 數

기 별	연 도 별	교과서 및 교사 지침서	계 (권)
1 기	1955	1, 2, 3학년	3
	1959-61	1, 2, 4, 5, 6	5
2 기	1962	1-1, 2-1, 3-1, 4-1, 5-1, 6-1	6
	1963	1-1, 2-1	2
	1964	1-1, 1-2, 2-1, 2-2	4
	1965	3-1, 3-2, 4-1, 4-2	4
	1966	5-1, 5-2, 6-1, 6-2	4
3 기	1967	1-2, 2-2, 3-2, 4-2	4
	1969	4-2, 6-2	2
4 기	1972	1-1	1
	1973	1-2, 2-1, 2-2, 3-1 3-2, 4-1, 4-2, 5-1, 6-1	8
	1974	4-2, 5-2, 6-2	3
	계		46권

Ⅱ . 分析結果 및 解釋

統一·反共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 그리고 統一·反共 教育內容의 變遷過程을 檢討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方法에 따라 文獻과 教科書 內容을 分析하였다.

文獻 分析을 통하여 統一·反共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概觀하려 한것은 研究의 目的에서 밝힌 바와같이 이들 政策이 教育內容에 어떻게 反映되어진 것인가를 分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統一·反共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먼저 概觀하고 다음에 教科書 內容의 變遷過程을 分析하여 끝으로 統一·反共政策 및 教育政策이 教育內容에 反映된 關係를 綜合 比較하려 한다.

1 . 文獻分析結果

가 .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 分析

建國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바뀌어진 統一政策을 어떠한 目的과 觀點에 따라 考察할 것이냐에 따라 多角度的 分析이 可能해질 것이며 그 變遷의 時期 区分 역시 多樣하게 分類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研究의 目的에 따라 먼저 建國以後 오늘날까지의 主要 統一政策 및 方案을 年度別로 概觀하고 教育政策에 反映된 統一政策을 몇 時期로 나누어 그 特徵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建國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제시된 主要 統一政策 및 方案을 年度別로 要約하고 圖表化하여 <圖表 4>와 같이 제시하였다.

< 圖表 4 > 統一政策 變遷過程

時 期	內 容	備 考
48. 6.12	北韓地域에서 人口 比例로 国会議員 選舉를 實施, 韓國国会와 合流	制憲国会決議
48. 7.17	UN 決議 (47.10.14 UN 小總會決定: 韓國만의 单独選舉 實施) 에 順應, 自由選舉로 北韓地域 代表를 韓國国会 에 派遣	制憲法 公布式 李承晚 국회의장 기념사
48. 8.15	反共무력 統一政策	李承晚大統領
49. 2.19	北韓政權과 그 社会团体를 해산하고 北韓만의, 유엔 감시하의 選舉	
53.11.23	(1) 北韓만의 单独 選舉로 韓國国会 殘餘 議席 보충 (2) 國民이 願한다면 南北 總選舉 實施 用意	李承晚大統領 聲明 (公報處 発表)
54.4.27 ~ 6.15	(1) UN 監視下 自由選舉 (2) 韓國 憲法 節次에 따른 南北韓 自由選舉 (3) 本 提案 採択後 6 個月内 選舉 實施 (4) UN 監視委員 活動 保障 (5) 選舉期間에 입후보자, 運動員등의 自由保障	제네바會議 卞榮泰 外務長官 提案 (5.22)

時 期	內 容	備 考
	<p>(6) 秘密選舉에 기초한 選舉</p> <p>(7) 人口 比例 議員 選出</p> <p>(8) 이를 위한 UN監視下 人口 調査</p> <p>(9) 全韓國 議會 選舉 直後 서울 開催</p> <p>(10) 開會後 決定해야 할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統領 再選出 与否 - 韓國 憲法 修正与否 - 軍隊 解散 問題 <p>(11) 韓國 現憲法 全韓國 議회가 修正 하지 않는 한 有効</p> <p>(12) 選舉 11個月前 中共軍 철수 完了</p> <p>(13) 選舉前 UN軍 漸進的 철수 始作</p> <p>(14) 統一 獨立 民主韓國의 권위를 UN이 保障</p>	
54. 7. 30	(1) UN憲章 및 UN總會 決議에 따라 統一 民主 獨立 韓國 達成을 再確認	李承晩大統領 訪美 時 共同聲明 統一 方案
54. 10. 2	<p>(1) 全中共軍 撤収</p> <p>(2) UN監視下 北韓地域 總選</p> <p>(3) 大韓民國 主權 扩充</p> <p>※ 國是로 闡明</p>	3代国会 統一 方案 決議

時 期	內 容	備 考
57. 9.10	(1) 中共軍 撤収 (2) UN監視下 北韓地域 總選 (3) 韓國 UN加入	国会決議 統一方案
60. 8.27	(1) UN路線에 의한 民主 平和 統一 (2) UN監視下 韓國 南北 總選	張勉 總理 施政 演說 統一方案
60. 9.10	(1) UN監視下 韓國憲法節次에 따라 南北 總選	鄭一亨 外務長官 言明 統一方案
60.11. 2	(1) UN監視下 韓國憲法節次에 따라 人口比例 南北 總選	5代 国会 決議 統一 方案
61. 5.16	(1) 國土 統一을 위해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 集中	5.16 革命 公約 統一方案
61. 6.24	(1) 힘에 의한 韓國 統一 거부 (2) 平和的 方法에 의해서만 韓國 統一	金弘堯 外務長官 聲明 統一方案
61. 7. 3	反共法 제정 法律 第643호	
61.11. 5	(1) UN總회가 再確認한 原則에 따라 平和的으로 韓國 統一	朴正熙 最高會議 議長 訪美時 共同 聲明 統一方案
64. 1.10	(1) 共產主義와 對決 民主主義 勝利 로 祖國統一 成就	朴大統領 年頭教書

時 期	內 容	備 考
64.11.3	(1) UN監視下 南北 自由選舉 以外 方案 排除	朴大統領 「學生의 날」 致辭(光州)
64.11.29	(1) UN監視下 自由 總選	6代 國會 決議 統一方案
66.1.18	(1) 統一을 위해 祖國近代化 拍車 (2) UN에 의한 統一政策 堅持	朴大統領 年頭敎書
66.10.17	(1) UN監視下, 土着人口比例 南北 自由選舉 (2) 북괴의 「外軍 撤收 外勢 干涉 없는 自主的 平和 統一, 南北 協商 및 文化交流 提案」은 武力 南侵 위장 전술 (3) 祖國近代化 促進, 自体 力量 비축으로 북괴 制圧	外務部 「統韓白書」
70.8.15	<平和統一 構想 宣言> (1) 북괴의 적화통일, 폭력 革命路線 拋棄 宣言 促求 (2) 인위적 障壁의 단계적 除去를 위한 현실적 方案 提示 用意 (3) UN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북괴 參加 不反對 (4) 南北韓의 「善意的 競爭」 促求	朴大統領 8.15 慶祝辭

時 期	内 容	備 考
71. 8.12	<p>“南北 離散家族찾기 運動” 提議</p>	<p>崔斗善 韓赤總裁 声明</p>
73. 6.23	<p>〈平和 統一外交政策 宣言〉 (1) 平和統一努力 繼續 (2) 相互 不干涉, 不可侵 (3) 南北對話 繼續 推進 (4) 북괴의 국제기구 参与 不反对 (5) 南北韓 UN 同時 加入 不反对</p>	<p>朴大統領 特別談話</p>
74. 1.18	<p>〈南北 相互 不可侵協定 提議〉 (1) 相互武力 侵略 拋棄 (2) 相互 內政 不干涉 (3) 休戰協定 効力 存続</p>	<p>朴大統領 年頭 記者会見</p>
74. 8.15	<p>〈平和統一 3大基本原則〉 (1) 平和定着 (2) 相互 交流 協力 (3) 南北韓 自由 総選挙</p>	<p>朴大統領 8.15 慶祝辭</p>
75. 1.14	<p>(1) 南北 相互 不可侵協定 締結 促求 (2) 休戰協定 効力 存続 前提下的 UN軍司 解体 不反对 (3) 南北韓 UN 同時 加入 不反对 또는 大韓民国 单独 UN 加入</p>	<p>朴大統領 年頭 記者会見</p>

時 期	內 容	備 考
	(4) 南北對話의 즉각 正常化 促求	
75. 7. 4	(1) 侵略 戰爭準備 중지 (2) 대 남간첩 侵略行為 중지 (3) 調節委, 赤十字會談 正常化 促求	7.4 共同聲明 3周年 朴大統領 特別談話
77. 1.12	(1) 不可侵協定締結後 美軍 撤収 不反對 (2) 南北對話, 場所變境 무방 (3) 식량 원조 用意	朴大統領 年頭 記者會見
78. 6.23	南北韓 經濟協力 提議 ○ 南北韓 經濟協力 促進을 위한 對話 交流 提議	

<圖表 4>에서 年度別로 主要 統一政策 및 統一方案의 變遷過程을 概觀하여 본 바와같이 變遷의 단계별로 몇가지의 特徵을 分析해 볼수 있다. 이같은 變遷段階를 4期로 区分하여 그 特徵的 要旨를 圖表化하여 提示하면 <圖表 5>와 같다.

〈圖表 5〉 時期別 統一政策 內容

時期区分	主要政策內容
第 1 期 : 建國後 ~ 6.25 動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共 · 武力 統一政策 ○ 北韓地域만의 代表選出을 위한 選舉 實施 提議
第 2 期 : 6.25 動亂後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獨立 民主韓國 再建 ○ UN 監視下, 南北韓 總選 實施 提議
第 3 期 : 1962 ~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 ○ 平和的 統一 基盤造成을 위한 国力培養 ○ UN 監視下,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 總選舉 實施 提議
第 4 期 : 1972 ~ 現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相互不可侵協定 提議 ○ 平和定着, 交流, 總選 등 平和統一 3大 基本政策

나 . 統一 · 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

統一 · 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概觀하기 爲하여 여러차례 改編된 教育課程 및 教育指針에 反映된 統一 · 反共教育의 目標을 分析하기로 하였다 . 變遷의 時期区分은 觀點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으나 重要的 政治的 變動期와 教育課程 改編期를 中心으로 하여 4 期로 区分하고 特徵的 轉換點을 分析하기로 한다 .

(1) 第1期(建国~ 6.25 動亂) : 民主市民教育 強調期

1945年 8.15를 맞은뒤 몇달이 지나지 않아 再建될 우리 國家의 教育을 設計하기 위하여 組織된 教育審議會에서는 우리나라 教育理念 및 方針을 採択했는데 그 內容은 " 弘益人間의 理念에 基하여 人格이 完全하고 愛國精神이 투철한 民主國家의 公民을 양성함을 教育의 根本理念으로 한다"고 하여 大韓民國의 理念指標가 民主主義임을 分明히 하였다. 그리고 위의 理念 貫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教育方針을 樹立하였다.

1. 民族的 獨立自存의 氣風과 國際友好 協調精神이 具全한 國民의 品性을 陶冶한다.
2. 實踐窮行과 근로역작의 精神을 強調하고 充實한 責任感과 상호애조의 公德心을 발휘한다.
3. 固有文化를 醇化昂揚하고 科學技術의 獨創的 創意로서 人類文化에 공헌함을 기한다.
4. 國民 체위를 向上하여 健全 발달의 기백을 양성케 한다.
5. 崇高한 藝術의 감상, 창조성을 고조하여 순후 圓만한 人格을 養成한다.

또한 軍政初期 學務局에서는 왜정의 잔재인 修身科를 폐지하고 公民科를 만들어 임시로 사용하였다. 1946年 9月1日 教育 審議會에 依해 制定되고 學務局이 採択한 教科目 및 年間 教授 時數는 附錄에 提示해 두었다. (附錄 表2 參照)

文敎部는 該에 또 종래 公民, 歷史地理로 나누어져 있었던

教科들을 합쳐 社会生活科라는 새과목을 만들어서 民主主義 教育에 힘썼다 .

38度線으로 갈라진 国土와 民族을 統一하여 單一國家를 세우려는 우리겨레의 念願과 美國을 包含한 유엔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共產陳營의 방해공작으로 드디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南韓만을 영토로하는 大韓民國이 1948年8月15日 解放日을 期하여 成立하였다 . 이에 앞서 制定된 憲法에서 大韓民國은 民主主義 原理에 의거한 새로운 社会秩序樹立을 지향하고 있음을 明確히 하고 있다 .

이러한 建國理念에 依하여 教育法이 1949年12月31日 法律 第85号로 制定 공포되었다 . 同法은 第1章 總則 第1条에서 韓國의 教育理念을 아래와 같이 規定하고 있다 .

• 教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여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에 寄与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이에 이어 第2条에서 上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教育方針을 세우고 있다 .

- 1 .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必要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健全발달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
- 2 . 愛國愛族의 精神을 길러 國家 自主獨立을 維持 發展하게 하고 나아가 人類 平和建設에 寄与하게 한다 .
- 3 . 民族의 固有文化를 繼承 昂揚하며 世界文化의 創造發展에 功獻하게 한다 .

4. 眞理探求의 精神과 科学的 思考力을 培養하여 創意的 活動과 合理的 生活을 하게 한다.
5. 自由를 사랑하고 責任을 尊重하며 信義와 協同과 愛敬의 精神으로 調和있는 社会生活을 하게 한다.
6. 審美的 精緒를 函養하여 崇高한 芸術을 감상 創作하고 自然의 美를 즐기며 余유의 時間을 有效히 使用하여 和諧明朗한 生活을 하게 한다.
7. 근검 노작하고 務実力行하며 有能한 生産者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經濟生活을 하게 한다.

以上에 概觀해 본 바와같이 教育目標와 教育指針水準에서 統一 : 反共教育에 關하여서는 전혀 言及되어 있지 않으나 民主市民 教育의 強調로 反共教育이 間接的으로 實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第2期(1951 ~ 1961) 反共教育 確立期

1950年6月25日 共産侵略으로 말미암아 同族相殘의 쓰라린 戰爭의 와중에 휩쓸리자 1951年2月 안호상 文教長官은 戰時下 教育 特別조치 요강을 發表하여 教育의 重点을 滅共必勝의 信念을 배양하고 戰局과 國際集團 安全保障의 認識을 明確히하여 戰時生活을 指導하는데 둔다고 천명하여 滅共統一教育을 主張하였다.

1952年 백락준 文教長官은 教育의 目標를 ① 自申人 ② 自由人 ③ 平和人의 養成에 두고 教育 領域을 4個로 区分하여 教育指針을 提示하였다. 教育 目標에는 統一·反共教育이 言及되지 않았으나 教育方針으로 提示한 4個領域(1. 知識教育 2. 技術教育 3. 道義教育 4. 國際教育)中 마지막 領域인 國際教育에서 滅共教育이라는

명칭으로 強調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國際教育 : 共產主義는 우리 人類의 敵이라는 信念下에 共產黨을 쳐 부순다는 強한 精神을 가지고 이 나라 戰爭이 正義를 為한 戰爭이며 이 世界의 道義的 戰爭을 승리로 종막을 거두게 한다는 認識을 철저히 고취시키는 國防知識을 教育하는 同時에 大學以下 中學에서는 軍事訓練을 實施한다.

1952年 10月 金法隣 文教長官은 戰時文教 建國文教 獨立文教 등 3大 教育方針을 提示하였다. 建國文教란 自由, 平等, 協同, 公正에 目標을 두고 그 目標을 向하여 指導하는 全人教育을 말한다고 先제하고 精神面으로 타락한 道義를 昂揚하고 物質面으로는 파탄된 生産을 진흥시켜 명일의 韓國을 民主主義를 基반으로 한 道義國家 生産國家로 發展시켜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軍政時에 急히 制定한 教育內容을 크게 개선시킬 의도에서 教育課程 教科書, 教科法을 개정 새신하기 위한 道義教育 委員會 教育課程 審議會 교수요목 制定위원회等 새로운 教育活動을 전개시켰다.

戰時文教란 教育全體를 通하여 反共教育과 國防力을 強化하려는 것이라 規定하고 滅共求國精神을 涵養하고 戰時體制強化와 國防技術 연마에 주력하여 戰時生活教育의 철저를 기하려 하였다.

1954年 李瑄根 文教長官은 防日·反共을 教育行政의 표어로 내세워 繼續的 反共教育을 強調하였다.

그해 4月에 制定 公布된 各級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 第2章 國民學校 第10條)에 의하면

道義教育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道義教育은 全教科 및 其他 教育活動 全般에 亘하여 行하되 各学年 總 授業時間數의 範圍內에서 35時間 以上을 이에 充當하여 야 한다.” 즉 道義教育은 全教科 指導와 教科外 活動 全般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 어떤 特定한 教科에서만 하거나 새로이 道義教育을 新設하려 하는것이 아님은 勿論 道義教育은 理論的인 지도가 아니라 實踐的 活動教育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勝共統一教育은 道義教育의 一部로 다루어지기 始作하였다.

1955年 8月 1日 文教部令 44號로 制定 公布된 教科課程은 그 時間配當 基準表에는 正式으로 道義教育에 對해 時間配當을 하지 않았으나 道義教科書가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이 道義教科書에 勝共統一問題가 하나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勿論 社會生活科가 새로이 나와서 종래의 修身·公民·地理·歷史를 망라한 정식과목으로 다루어 지게 되고 이중에 統一問題가 조금 言及된것은 特記할만하다 할 것이나 지극히 추상적이고 미미한 정도였다.

1955年에 制定된 道義教育의 目標와 統一·反共教育

○ 國民學校 道義教育의 目標

(1)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여가며 國土統一과 民主國家 建設에 進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民族의 理想은 우리나라 憲法이나 教育法에 일관된 精神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教育의 目標도 여기에 있다.

(2) 国民学校 道義教育은 이와같은 民族의 理想實現에 이바지
할수있는 人格의 터전을 복돋아 주는데 그 임무가 있다 .

○ 領域

- ① 個人生活 ② 對人生活 ③ 公民生活
- ④ 經濟生活 ⑤ 反共·防日

○ 反共·防日要素

- ① 反共·防日의 思想을 굳게 갖는다 .
- ② 國家에 대한 忠誠心을 굳게 갖는다 .
- ③ 民族의 固有文化와 美風良俗을 維持 發展시킨다 .
- ④ 品位있는 世界市民으로 自由世界와 親和한다 .

○ 反共·防日의 內容

道義教育의 目標은 그 國家社會의 理想과 現實 또는 당면한
과제가 特殊性을 內包하는 것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反共과 防日 그것은 오늘날 우리韓國 民族의 現實的인
歷史이며 피하지 못할 과제이다 . 배타·보복 그것이 目的이
아니며 우리를 괴롭혀 왔고 또 괴롭히고 있는 敵性을 強力히
발리치고 自主的인 民主國家建設을 굳건히하여 후고의 念慮
없는 平和롭고 복된 生活을 찾자는 것이다 .

- ① 反共·防日의 必要·그思想
- ② 民族的 자각과 그 忠誠心
- ③ 自由·民主陳嘗과 共產主義의 움직임

1959年 道德教材의 目標와 統一反共教育

○ 改編취지

- ① 民主主義와 전통주의의 융화될수 없는 거리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國民이 준거 할수 있는 生活指標가 없는 혼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
- ② 共產侵略으로 인하여 社會의 道義가 여지없이 타락했다 .
- ③ 教育分野에서 道義教育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수신 교과 폐지와 修身教科의 社會生活科로의 흡수는 실제로 分科主義的 知識教育에만 치중하게 되어 道義教育의 空白을 만들었다 .

○ 反共教育의 目標

- ① 反共思想을 굳게 갖는다 .
- ② 品位있는 世界市民으로서의 自由世界와 親和한다 .

○ 反共教育의 內容

- 南北統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大韓民國 反共은 실로 그 死活이 걸려있는 重要한 問題다 . 그러기에 우리나라 에서는 道義教育時間이 特設되고 道義教育을 爲한 教材가 편찬되기 이전부터 反共에 對한 教育을 特히 강조해 왔던 터이고 여기서 反共에 關해서는 그 성질로 보아서 公民 生活에 包含시킬 수 있겠으나 이 問題가 우리 의 當면한 問題로서 가장 시급한 問題임에 감하여 이를 特히 強調 하여 내세운 것이다 .

- ① 共產主義 부당성을 깨닫고 이를 분쇄하는 결의를 갖는다.
- ② 民主發展에 대한 굳은 信念을 갖는다.
- ③ 自由世界와 親和하여 世界平和에 공헌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3) 第 3 期 (1962 ~ 1971) : 反共教育 強化期

1960年4月19日 學生들의 의거에 의해 民主黨 政權이 들어서자 統一의 문제가 社會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여 勝共 統一 教育의 轉換期를 맞이 하는 듯 했으나 過去의 反共教育을 確認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1961年5月16日 軍事革命에 依하여 우리나라의 勝共·統一教育은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하고....」로 시작되는 革命 公約에도 明白히 그 轉換의 意味가 강조 되었다. 이 時期에 나타난 勝共·統一教育의 強化過程은 다음과 같다.

1962年2월 國民學校에서의 緊急히 改定되어야 할 教科를 道德, 實科, 社會, 保健等 네 教科로 보고 道德教科를 우선적으로 改編하여 反共教育을 強化하였다.

1962年度 道德教育中 反共教育目標

○ 취 지

反共은 단순히 우리 人間生活의 어느 特定한 方面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反共에 관한 教育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人間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共產主義는 어떠한

方法으로 어떻게 배반하고 있으며 國民의 自由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의 실지를 理解시켜야 함은 물론 나아가서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을 공고히 함으로써 民主수호, 反共·統一의 精神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 目 標

• 共產主義는 어떠한의도에서 어떠한 정치제도를 쓰고 있으며 그것은 民主主義 원리를 어떻게 배반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 共產主義 밑에서 國民들은 어떠한 生活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民主主義 生活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 共產主義는 人間의 기본권인 自由와 創意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 共產主義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범하였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罪惡을 범하였는가를 알게 한다.

• 共產主義 侵略을 막기 위하여 我國軍과 유엔軍은 어떻게 용감히 싸웠는가를 알게 하고 國軍과 유엔軍에 대한 親密感을 더욱 굳게 한다.

• 共產主義는 우리나라와 自由世界를 侵略하기 위하여 어떠한 方法을 쓰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共產宣傳전술과 간첩전술을 경계하게 한다.

이어서 1963年2월에 改定된 教育課程에서의 勝共統一教育目標은 다음과 같다.

1963年度 教育課程의 改定

(1) 教育課程 一般 目標에서

- 새 教育課程은 民主的 信念이 確固하고 反共精神이 투철하여 民主적으로 잘 살줄 아는 人間을 양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학습경험을 包含하여야 한다.
- ① 그러기 위해서는 民主主義 理念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 信念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學習活動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② 共產主義가 우리나라와 自由世界에 끼치는 行動을 이해시키고 確固한 反共意識을 昂揚하는 學習의 機會가 充分히 마련되어야 한다.

(2) 國民學校 反共 및 道德教育에 關한 內容中에서 어린이에게 확고한 民主的 信念과 生活態度를 기르고 올바른 國民精神을 신장시켜 철저한 反共意識을 함양하기 위하여는 學校教育의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용이 주도한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3) 道德教科의 영역중 에서

- ① 國家生活 : 共產主義의 그릇됨과 아울러 民主主義의 우월함을 깨닫고 愛國愛族하는 마음과 態度를 기른다.

(4) 第4期 (1972 ~ 現在) : 統一教育 確立期

이 時期는 종전의 消極的 反共教育에서 보다 積極的인

勝共・統一教育으로 轉換을 모색하게 된 時期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轉換의 모색을 爲한 努力은 国土統一院에서 시도되어 統一・教育 教授指針書가 개발되고 文敎部에서도 統一에 대비하는 教育의 強化를 論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가지 論議가 거듭되던중 1973 年에 들어와서 教育課程이 크게 改編되고 教科書 內容도 크게 수정되었다. 그 變遷過程을 簡略히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1973 年度 教育課程의 改定

○ 改定の 背景

從前까지 教科外로 과하던 反共 道德生活을 教科의 하나로 편입시키고 教科名도 道德科라고 부르게 되었다. 1968 年에 공포된 國民教育憲章 理念과 1972 年 "10 月維新"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內容으로 構成하였으며 主体的 民族史觀에 입각한 價值觀을 確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고 社會의 연대의식을 強化하려는 것이 그 改定 理由였다. 特히 勝共統一教育면에 있어서는 大韓 赤十字社에서 제안한 이산가족찾기에 이어 7.4 共同聲明이 있었고 南北會談이 進行됨에 따라 우리의 反共精神이 이완될 우려도 컸으므로 反共教育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觀點에서 教育課程을 構成하였다.

○ 改定の 基本方向

道德科 教育課程을 새로이 構成함에 있어 特히 強調한 基本哲學은 다음과 같다.

- ① 國民教育憲章의 理念을 구현하여 유신과업을 완수한다

- ② 學門的 접근을 시도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한다.
- ③ 主体性 確立을 이루어 國民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다.
- ④ 統一에 對備하는 反共教育을 함으로써 自主國防의 信念을 가진다.
- ⑤ 國家社會의 成員으로서 實踐力을 길러 행동시범을 익힌다.

○ 統一教育의 目標

새로이 改定된 教育課程上에 나타난 道德科의 目標中 勝共 統一教育에 關聯된 目標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課程 一般目標에서

○ 自我實現

- 國家發展 : 올바른 國家觀과 統一에 대비하는 자세를 確立하게 한다.

- 國土防衛를 爲한 國民으로서의 責任感이 강하게 한다.
- 民族文化에 對한 理解를 깊게하고 그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게 한다.
- 世界속의 韓國人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世界平和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精神을 기른다.

○ 民主的 價値의 強調

- 自由의 尊貴성과 이에 따르는 責任을 이해하고 正當하게 努力하도록 한다.
- 民主主義의 여러가지를 우리風土에 알맞도록 認識하고 實踐하게 한다.
- 韓國民主主義의 우수성을 認識하고 反共信念에 투철하게 한다.

(2) 道德科의 目標에서

- 民主主義의 우월성과 共產主義의 그릇됨을 알고 国土統一을 平和的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

(5) 時期区分에 따른 統一·反共教育政策 內容要約

4 期로 区分한 時期別로 統一 및 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概觀해본 結果를 다시 要約하고 그 特徵的 要旨를 圖表化하여 <圖表 6 >과 같이 提示해 둔다

<圖表 6 > 時期別 統一·反共教育政策 內容

時 期 区 分	主 要 教 育 政 策 內 容
第 1 期 : 建 國 後 ~ 6.25 動 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市民教育의 強調 ○ 民族的 獨立 自存意識의 強調 ○ 目標水準에서 統一·反共教育 內容 言及없음 (民主·民族的 獨立의 強調로 反共·統一教育을 間接的으로 表現)
第 2 期 : 1951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滅共求國精神의 涵양 ○ 反共思想教育을 道義教育에서 言及
第 3 期 : 1962 ~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共을 第 1 的 國是로 함 ○ 道德教科중 反共教育 強化
第 4 期 : 1972 ~ 現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極的 反共教育에서 積極的 統一教育으로 轉換 ○ 國力培養과 總和團結로 平和的 統一基盤 造成

2. 教科書 內容 分析 結果

教科書を 分析한 結果는 주로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目標와 具體的 內容例文을 中心으로 提示될 것이다.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目標와 教育課程上의 目標를 綜合 比較한 結果는 뒤에 提示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教科書 改編過程과 年度別 分析對象 教科書 數를 概觀하고 뒤이어 教科書 內容 分析結果를 年度別로 提示하기로 한다.

가. 教科書 改編過程의 概觀

教育課程의 指針에 따라 各級學校의 全學年을 위한 教科書を 처음으로 改編 發刊한 것은 1955年度의 일이다. 그후 1959年度에 道義教科에 대한 改編이 있었고 1962년에 補充된바 있다.

1963年度부터는 1년에 두학년의 教科書を 改編하는 作業을 始作하여 1966년에 全學年의 教科書 改編을 完了하였다.

1966年 以後부터 1972年까지는 全面的 教科書 改編은 없었으며 部分的인 修正 및 補充作業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972년부터 學年別 教科書 改編作業이 始作되어 1974년에 完成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改編過程을 일괄해서 國表化 한것이 <圖表7>에 제시된 바와 같다.

< 圖表 7 > 教科書 改編 過程

年 度	改 編 內 容	分 析 對 象 教 科 書
① 1955	全學年教科書：全面改編	1, 2, 3 學年
② 1959	全學年教科書：全面改編	全學年 教科書
③ 1962	28 個 單元 內容 補充	
④ 1964	1, 2 學年教科書：全面改編	1, 2 學年
1965	3, 4 學年教科書：全面改編	3, 4 學年
1966	5, 6 學年教科書：全面改編	5, 6 學年
⑤ 1966 ~ 1967	23 個單元 內容 補充	
⑥ 1969	3 個單元 內容 補充	
⑦ 1972	1 學年教科書：全面改編	1 學年
1973	2, 3 學年과 4-1, 5-1, 6-1 教科書：全面改編	2, 3 學年 4-1, 5-1, 6-1 教科書
1974	4-2, 5-2, 6-2 教科書：全面改編	4-2, 5-2, 6-2 教科書

나. 年度別 教科書 內容 分析 結果

< 圖表 7 > 에서 提示된 바와같이 年度別에 따라 全學年의 全教科書를 全面 改編한것도 있으며 部分的인 單元과 內容을 修正 補完한것도 있다. 따라서 全面 改編한 경우는 全教科書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으나 部分的인 修正·補完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部分만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아 修正·補完된 內容만을 分析하여 그

結果만을 提示하기로 하였다 .

分析된 教科書 內容을 年度別로 要約하여 圖表化한것이 <圖表 8> 에서 <圖表 12>에 提示된 바와 같다 .

<圖表 8> 年度別 . 学年別 教科書 內容分析結果 (1955 ~ '59)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1955 1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
2	○ 북한체제 아래에서 고생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 고취 ○ 통일의 필요성 : 이산가족상봉 ○ 통일의 과정 . 공산군 격퇴 . 각자 의무에의 충실 . 군사훈련의 필요 ○ 국군에 대한 감사	/ // /
3	○ 국군에 대한 감사 . 6.25 때 공산군을 격퇴한 용감한 국군 . 항상 휴전선을 지키고 후방에선 농사 짓기와 다리도 고치는 국군 아저씨 . 각자 맡은 일에 충실 . 위문편지와 위문품 보내기	/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1959 1	○ 국군에 대한 감사	/
2 - 1	○ 통일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군 격침 , 각자의무 충실 • 군사훈련의 필요 	/
	○ 국군에 대한 감사	/
	○ 통일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
2 - 2	○ 통일의 과정 : 공산군 격퇴	/
3 - 1 2	○ 국군에 대한 감사	/
	• 정성껏 위문주머니 보내기	/
3 - 1 2	없 음	
4 - 1	○ 6.25 북파 남침의 죄악상 폭로 ; 현할세 징수 , 강제로 끌어감	/
	○ 유엔 군에 대한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 잃은 벤장군 끝까지 용진 	/
4 - 2	○ 호국 반공용사에 대한 감사와 원호정신 고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아저씨 보살핌으로 전쟁고아들이 꽃같이 자람 	/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1959 - 5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 ; ○ 생활이 곤란 ○ 국군에 대한 감사 ; · 공산군 격멸 (적의 진지 파괴) · 용사들의 희생정신 	/
5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감사 ; · 국군용사 격려 · 유가족 위로 ○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 , 반공모임 ; · 아시아 반공대회의 의의 	/
6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통일의 신념 고취 ○ 민주적 생활태도 육성 ○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력의 양분 ○ 민족간의 증오심 분리를 책동하는 북괴의 만행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 신라 .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 경위 	/

년도및 학년	내 용	빈 도
6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이론 비판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과중한 노동 • 감시감독 매질 처벌 • 노예와 같이 일함 • 거짓선전으로 국민을 속임 ○ 공산침략 분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세계끼리의 단결 ○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 • 소련의 무모한 행위에 항거 	/

< 圖表 9 > 1962 년에 補充된 28 개 單元內容 分析結果

년도및 학년	내 용	빈 도
(62) 1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군 격멸 ○ 6.25 남침과정과 북괴의 최악상 폭로 	// //
2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때 전사한 분들의 은공에 보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에 대한 동정 • 현충일의 의의 ○ 남, 북한 비교 : 공산사회의 비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박탈, 독재정치 	/ /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6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남침의 복귀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박탈, 농산물수탈, 강제 노동 • 공포속의 생활, 거짓말교육 ○ 통일의 필요성 : 이산가족의 상봉 ○ 통일의 과정 : 공산군 격퇴 군사훈련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노고에 감사 말은바 임무수행에 충실 	/ / /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비어 조심 • 간첩색출에 협조 ○ 6.25 복귀 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민학살, 방화, 애국지사 강제납북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의 노고에 감사 • 위문품, 위문편지 내기 ○ 북한의 비참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부족 (생일에도 밥한그릇 못 먹는다) 말도 제대로 못함 	/ // // /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62)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선전 • 불건수탈, 현물세 징수 ○ 공산·민주세계 비교; 민주주의 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대함에 살고있는 기쁨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담을 통한 공산격멸의 진념 ○ 유우엔군에 대한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를 위해 용전한 벤장군부자 	// / / /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남파 - • 국내실정보고 • 민심교란 • 남한에 대해 거짓선전 • 당국에 협조하는 길 (어린이: 반공포스터그리기, 표어만들기) ◎ 북한의 비참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무기 구입으로 국민생활 비참 • 불안한 생활 • 자유와 행복 박탈 ○ 통일의 필요성 - 북한동포 구출 ○ 호국 반공용사에 대한 감사와 원호정신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무릅쓰고 적의 진지 파괴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수탈 	/ / / / // /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민학살, 사람을 말이나 돼지같이 함부로 부림 ○ 공산·민주세계의 비교; 민주주의 우월 공산사회와 민주사회의 인심 비교 (돌려보낸 소) ○ 북한의 비참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늦도록 심한노동 • 천리마운동으로 노동력 착취 • 말하는 자유, 직업의 자유가 없음 • 배급살로 죽을 썩어 먹음 	 / / /
6-1		

<圖表 10> 1964 ~ 1966 年度에 改編된 教科書 內容 分析結果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64)	○ 국군에 대한 감사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 북한의 비참상 폭로 ○ 남·북한 비교: 민주주의의 우월성 	 / /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감사: 위문품보내기 ○ 통일의 필요성: 이산가족의 상봉 	//

년도 및 학년	내 용	비 도
<p>(64)</p>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 남침의 과정 ○ 6.25 북괴 남침의 최악상 ○ 6.25 때 희생당한 전사자의 은공 보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에 대한 동정 • 현충일의 의의 ○ 북한의 비참상 폭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선전, 재산, 곡식수탈, 양민학살, 독재정치 마음대로 놓고 공부도 못하는 북한어린이 ○ 통일의 필요성 : 북한동포 구출 ○ 북괴의 간첩남파 : • 비밀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괴행동 	<p>// (9)</p> <p>/</p> <p>/</p> <p>○</p> <p>///</p> <p>///</p>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 • 강제로 의용군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민학살, 공포속의 생활, 강제노동 • 곡식수탈, 거짓교육, 강제남북 자유박탈, 감시받는 생활 • 공산당 격퇴를 위한 각오 ○ 납치인사 가족에 대한 동정 ○ 통일의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쌍한 북한 어린이 구출 	<p>///</p> <p>/</p> <p>/</p> <p>//</p>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p>(65)</p> <p>3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 체포에 적극 협력 ○ 6.25 북괴 남침의 최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민 학살 • 방화 • 애국자 강제 납북 ○ 6.25 북괴 남침 과정 ○ 국군에 대한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군 격퇴 • 국군아저씨들의 아름다운 마음씨 • 위문품, 위문편지 보내기 ○ 통일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 고생하는 북한동포 구출 ○ 북한의 비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부족, 언어의 자유 박탈 ○ 민주, 공산 비교 ; 민주주의의 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세제에 태어난 기쁨 	<p>/</p> <p>//</p> <p>/</p> <p>//</p> <p>/</p> <p>/</p> <p>/</p>
<p>3 -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 남침의 최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없는 양민 강제 감금 • 양민 학살, 강제 납북 	<p>///</p>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65) 3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군의 만행에 대한 증오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피해를 쳐부실 각오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 색출 요령 • 간첩 체포에 적극 협조 ○ 남북인사 가족에 대한 동포애 ○ 6.25 북괴 남침의 과정 ○ 통일의 필요성 : 귀향의 기쁨 	// / / /
4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 남침의 최악상 폭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선전, 탈진탈취 ○ 북한의 비참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세 징수로 생활곤란 ○ 통일의 신념 ○ 국군의 감사 : 공산군 격멸 ○ 유우엔군에게 감사 : 유우엔군의 용전 	/ / / /
4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와 재산 몰수, 농산물 착취 (현물세, 성출미) • 고된 노동으로 혹사 • 굶주림으로 허덕임 • 공산주의 선전에 동원 	/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p>(65)</p> <p>4 -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 , 민주세계 비교 , 민주주의의 우월성 (우리나라에서 생활함을 행복하게 여기고 발전에 노력) ○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없는 어린이 죽임 ○ 통일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포 구출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기밀 , 정부기밀 탐지 • 부상당한 동료 간첩 살해하는 잔인성 • 간첩 색출에 적극 협조 ○ 공산군 격멸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생활에 힘씀 ○ (유엔군에 대한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 부족시 900 명의 고아를 제주도로 북송 ○ 6.25 남침시 북파의 최악상 폭로 	<p>/</p> <p>/</p> <p>/</p> <p>/</p> <p>/</p> <p>/</p> <p>/</p> <p>/</p>
<p>(66)</p> <p>5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남파 ; 민심 교란 , 국내실정보고 남한에 대한 허위선전 간첩색출에 신고 	<p>/</p>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p>(66)</p> <p>5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무기 구입으로 국민들의 생활 비참 • 자유와 행복 박탈 ○ 통일의 필요성 ;북한동포 구출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협조자 강제로 끌어감 • 방화 • 양식 수탈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 ○ 호국반공용사에 대한 감사와 원호정신 고취 ;적의진지 탈환 	<p>/</p> <p>/</p> <p>//</p> <p>/</p> <p>/</p>
<p>5 -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착취 • 탁아소로 어린이들 보냄 (아이들 생각 잇도록) • 월남가족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어감 • 굶주림과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동포 ○ 통일의 필요성 :북한동포 구출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용군 모집을 위해 거짓선전 	<p>///</p> <p>//</p> <p>///</p>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p>(66)</p> <p>5 -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인사 납치 (비협조자 학살 환자까지 채찍질) ○ 호국용사에 대한 감사와 원호정신 고취 • 국군용사 격려, 유가족 위로 ○ 북송교포의 비참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일용품 부족 • 고된 노동 • 공부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 • 약도없는 병원 ○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에 감사 ○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각국의 움직임 ; 아시아 반공대회의 의의 	<p>/</p> <p>/</p> <p>/</p> <p>/</p> <p>/</p>
<p>6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자유, 직업의 자유 박탈 • 무기구입으로 생활 비참 • 노동력 착취 (천리마운동), 죽음에 향거하는 북한 동포들 	<p>///</p>

년도 및 학년	내 용	빈 도
<p>(66)</p> <p>6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평화를 위해 싸우는 국군에 대해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요새 함락 • 희생정신 ○ 유엔군에 대해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전분투하다 쓰러진 모니간 일동병 ○ 북송교포들의 비참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포 북송 • 소나 말같이 일함 • 기쁨과 자유가 없음 ○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인들 기관차로 체코 탈출 ○ 6.25 북괴남침시 최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지사 모조리 학살 • 사람을 짐승처럼 함부로 부림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 ○ 통일의 필요성 ; 북한동포 구출 ○ 민주·공산사회 비교 : 민주주의의 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사회와 민주사회 인심비교 <p>(내려보낸 소)</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p>(66)</p> <p>6 -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 공산사회 비교 : 대한민국에 사는 기쁨 ○ 6.25 북괴남침의 최악상 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만식선생등 애국지사 살해 · 거짓선전으로 군대모집 , 반공포로 살해 ○ 북한의 비참상 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과 열에 지쳐 앓는 북한주민들 · 국민을 채찍질 · 어린이들 힘든 노동에 동원 ○ 북한의 비참상 목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어진 옷 , 공부도 못하고 강제로 일하는 북한 어린이들 · 10 ~ 15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 , 농민 , 사무원 ·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 · 지독한 독재정치 <p>통일의 필요성 : 북한동포 구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주 학생의거 (물건약탈 , 갖은 만행을 자행하는 소련군과 북한공산당의 하는 짓에 분개) 	<p>/</p> <p>//</p> <p>///</p> <p>/</p> <p>/</p>

년도및학년	내 용	빈 도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이론의 비판 ; •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는다 실제 ; • 남녀노소에 과중한 노동 강요 • 감시 , 감독 , 매질과 형벌 • 노예와 같이 일함 	/
6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여러나라의 반공투쟁 ; •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헝가리 국민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에 대한 감사 	/

<도표 11> 66 , 67년에 보충된 23개 단원 내용분석결과

학 년	내 용	빈 도
1	없 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 통일에 대한 신념 ; 통일의 배 띄움 (북한동포들에게 용기를 줌) ○ 군인에 대한 애경심 고취 • 군인들의 유비무환 정신 본받음 	/ / /

학 년	내 용	빈 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 만행에 대한 증오심 북한의 비참상 먹을것, 입을것 부족, 생선 못먹어 물래 가재잡이 ○ 군인에 대한 애경심 ○ 인류평화를 위해 베트남에서 용전 ○ 통일의 필요성 ; 북한동포의 구출 이산가족 상봉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 식량부족으로 옥수수로 밥을 지음 고된노동으로 혹사 굶주림으로 허덕임, 공산주의 선전에 동원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국제평화를 위해 애씀, 베트남 격퇴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 ○ 피난민에게 까지 총질하는 공산군들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송교포들의 비참상 ○ 민주공산 비교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세계 여러 나라의 반공운동 (반공연맹)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6	국군에 대한 애경심	/

<도표 12> 69년에 보충된 3개단원 내용분석 결과

학 년	내 용	빈 도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신고에 적극 협력 ; (공비 완전 섬멸)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 만행에 대한 적개심 ; 이승복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죽임 ○ 공산당 격멸의 각오 ○ 북한 비참상 ○ 강냉이밥에 된장국도 없어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 ○ 북한 공산당들의 만행 ○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선전 (남한에 대해) ○ 김신조 31인조 사건을 남한에서 무장폭동이 났다고 거짓보도 	/

<도표 13> 1973년도에 개편된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학 년	내 용	빈 도
(7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 국군의 우월성에 대한 긍지 ○ 6.25 북피남침의 과정 ○ 6.25 북피남침의 최악상 폭로 	/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 국군의 우월성 • 위문품 보내기 ○ 민주·공산 비교 ; 민주주의의 우월성 • 질이 나쁜 북한의 물건 ○ 통일의 필요성 ; 이산가족의 상봉 	// /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국·반공용사에 대한 감사와 원호정신 고취 • 군경 유가족 돕기 ○ 6.25 때 희생당한 전사자의 은공에 보답 • 현충일의 의의 • 유가족에 대한 동정 	/ /

학 년	내 용	빈 도
2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비교 ; 민주주의의 우월성 ○ 6.25 북괴 남침 과정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선전, 재산·곡식 수탈 · 양민 학살 남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문품과 위문편지 보내기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인사 강제 남치 ○ 남치인사 유가족 위로 ○ 통일의 필요 : 북한동포 구출 ○ 방위성금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와 군함기금 마련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 색출요령 습득 · 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3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민 학살 · 방화 · 애국지사 강제 남치 ○ 국제평화를 위해 힘쓴 국군에 대한 애경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감하고 예절바른 우리 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학 년	내 용	빈 도
4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파 남침의 최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선전으로 의용군 모집 ○ 공산당의 여객기 납북등 최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들을 협박, 고문, 약물주사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남파 - 비밀 탐지, 민심교란, 거짓선전 ○ 남·북한 비교 - 민주주의의 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발전한 모습 ○ 국가의 중요성 - 적화된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5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의 필요성 ; 공산침략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생명보호 • 희생 감소 ○ 국군아저씨 노고에 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껏 위문하는 태도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 ○ 향토예비군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침략 격퇴 • 직장파고장을 지킴 • 무장공비 섬멸에 앞장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학 년	내 용	빈 도
5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들의 만행폭로와 경제심 고취 • 공비를 경제 분쇄하려는 결의 ○ 북송 재일동포들의 비참상 • 안내원의 감시속에 말도 제대로 못함 	 / /
6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투쟁 • 기차로 자유를 찾아 탈출한 체코인들 ○ 민주·공산세계 비교 ; 민주주의 우월 • 인권을 짓밟는 공산 독재 • 자유화의 선두를 걷는 사라예보 시민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길도 넓혀주고 농사일도 돕는 국군아저씨 • 노고에 보답코자 위문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희생된 김대위 ○ 유엔군에 대한 감사 ○ 공산당의 종교탄압 폭로 • 혹독한 탄압, 비인도적 만행으로 종교를 말살하려고 애쓰 	 / / // / /

학 년	내 용	빈 도
6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도적인 독재정치 • 신도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강제 이주 ○ 북한의 비참상 목로 ; • 과거 지주였던 집은 강제 이주, 집을 강제로 빼앗김 	
<p>(74)</p> <p>4 -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에 대한 적개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간첩신고 • 간첩침략, 경제 분쇄 ○ 유신정신의 교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유신의 참뜻 ○ 간첩에 대한 경각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남파 - • 밀봉교육 • 군사기밀, 정부기밀 탐지 • 간첩의 잔인성 - 부상당한 동료간첩 살해 ○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없는 어린이 죽음 ○ 6.25 남침의 복귀 최악상 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민에게도 충질하는 괴뢰군들 	<p>//</p> <p>/</p> <p>/</p> <p>/</p> <p>/</p>

학 년	내 용	빈 도
4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된노동 죽으로 때우는 세끼니 · 야원 얼굴들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5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최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인사 납북, 거짓선전 ○ 통일의 필요성 : 이산가족 상봉 북한동포 구출 ○ 공비들의 증언과 경계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집단의 거짓선전 · 심한훈련과 노동으로 시달리는 북한 공산군 · 10년 군인생활에 휴가 없음 · 반공정신 강화 ○ 공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소탕에 적극 협력 ○ 북한의 비참상의 폭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노동의 강요 ·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북한 학생 · 약이 없는 병원 	// /// / / //

학 년	내 용	빈 도
5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 일용품 부족으로 고생 • 노동력 착취를 위해 아이를 탁아소에서 기름 	
6 - 2	<p>◎ 북한의 비참상 폭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과 열에 지쳐 앓아눕는 북한 주민들 • (반동분자는 토질병이 심한 고원으로 보냄) • 북한 아이들은 떨어진 옷을 입고 공부도 못하고 강제로 일만 함 • 하루에 10 ~ 15 시간씩 고된 일을 하는 북한 주민들 •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 <p>○ 통일의 필요성 : 북한동포 구출</p> <p>○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는다 <p>실제 : 남녀노소의 과중한 노동력 강요</p> <p>감시, 매질, 명령과 형벌, 압박, 시달림</p> <p>○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 신의주 학생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 약탈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소련, 북한공산당에 분개 	<p>///</p> <p>//</p> <p>/</p> <p>/</p>

학 년	내 용	빈 도
6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곳에서 반공투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를 찾으려는 헝가리인들의 투쟁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선전으로 군대 모집 • 수용소에서 우리 반공포로 살해 • 어린병사들 앞장세워 죽임 • 조만식 선생님 애국지사 살해, 납북 ○ 무장공비의 만행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복 어린이의 참사 • 공비 늘에 대한 적개심 고취 	

3. 綜合 比較 分析

前章에서는 文獻 및 教科書 內容 分析結果를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 그리고 教科書 改編過程과 教科書 內容 등의 領域으로 나누어 提示하였다. 여기서 다시 이들 領域別 分析 結果를 綜合 整理하면서 統一政策이 教育政策과 教育目標에의 反映 与否와 教育目標의 教科書 內容에의 反映与否를 比較 分析 하기로 한다.

가.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과의 關係 比較 分析

統一·反共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概觀해 본

前章의 結果 (圖表 5, 6 參照) 를 綜合, 比較해 보면 < 圖表 14 > 와 같다.

< 圖表 14 > 時期別로 본 統一政策과 反共教育政策과의 比較

時 期	統 一 政 策	教 育 政 策
第 1 期 (建國 ~ 6.25)	○ 反共 . 武力統一政策	○ 反共 . 統一教育目標 提示없음 .
第 2 期 ('51 ~ '61)	○ 統一獨立 民主韓國 再建 ○ UN 監視下 南北總選 提議	○ 滅共求國精神의 涵양 ○ 反共思想고취
第 3 期 ('62 ~ '71)	○ 平和的 統一政策 ○ 反共의 國是化	○ 反共教育強化 ○ 統一政策의 反映 未洽
第 4 期 ('72 ~ 現在)	○ 段階別 平和統一政策 (三大基本原則 提示)	○ 積極的 統一教育에의 전환 (轉換) ○ 國力增強 및 總和團結

< 圖表 14 > 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時期別로 보아 統一政策과 統一 및 反共教育政策에 있어서 몇차례의 의미있는 變遷이 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變遷된 統一政策이 教育政策과 目標에 反映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特記할 것은 第1期에 해당되는 建國以後 6.25 動亂까지에 提示된 教育目標나 政策에는 統一政策이 전혀 言及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과 第2期 동안에는 表明된 統一政策과 教育政策 및 目標은 서로

相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統一政策과 教育政策 및 目標간에 어느 정도의 一致를 보이기 시작한 時期는 第3期 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一貫되고 連繫性있게 反映되어 있지 못하다. 第4期에 들어와서의 統一·反共教育政策과 目標는 종전의 消極的 反共教育에서 보다 積極的 統一教育으로 轉換되고 있어 統一·反共政策과 더욱 一致되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致度는 政策과 目標水準에서이며 이들 政策과 目標들이 教科書內容에 어느 정도 反映되어 있는지는 다음에서 分析해 보기로 한다.

나. 統一政策, 教育目標, 教育內容과의 關係 比較 分析

政府의 統一·反共政策·教育理念·目標가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정도는 앞서 제시한 結果로서 알 수 있었다. 먼저 그 內容을 한눈으로 比較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측면에서 分析된 目標를 項目別로 대조시켜 表化 한것을 提示하고 <圖表15> 統一政策과 教育目標의 教科書 內容에의 反映與否를 차례로 比較 하기로 한다.

<도표 15> 통일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과의 비교분석결과

연도	통일정책	교육과정목표	교과서내용
1955	UN결의에 따른 통일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방일의 사상 합양 ○ 민족적 자각과 충성 ○ 자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을 위한 노력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감시하 북한지역총선 ○ 한국 유엔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부당성을 깨닫고 이를 분쇄할 결의를 갖는다 ○ 민주발전을 위한 굳은 신념 ○ 자유세계와 친화 세계평화에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 북괴 6.25 남침과정과 죄악상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 비교 • 국군과 유엔에 대한 감사 • 원호정신 • 세계여러나라의 반공 운동과 반공투쟁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

연도	통일 정책	교육 과정 목표	교과서 내용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밑에서 국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생활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 공산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나 창의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 공산군에 대한 적개심 • 북한의 비참상 • 국군과 공산군 비교 • 민주 공산 비교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반공정신 강화 • 원호정신 고취 •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감사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범하였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나 알게 한다. ○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우리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용감히 싸웠나 알게 하고 	

연도	통일 정책	교육 과정 목표	교과서 내용
		<p>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굳게 한다.</p> <p>○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와 자유세계를 침략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공산선전술과 간첩술을 경계하게 한다.</p>	
<p>1964 1965 1966</p>	<p>(1) UN총회가 재확인한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한국 통일</p> <p>(2) 공산주의와 대결, 민주주의 승리로 조국 통일</p> <p>(3) UN 감시하 남북 자유선거</p>	<p>○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와 자유세계에 끼치는 행동 이해</p> <p>○ 확고한 반공의식 양양</p> <p>○ 공산주의의 그릇됨과 민주주의의 우월함 인식</p>	<p>•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폭로</p> <p>• 6.25 북괴 남침 과정</p> <p>• 자유대함과 공산북한의 실정 비교</p> <p>•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p> <p>• 북한의 비참상</p> <p>• 북괴의 간첩 남파</p> <p>• 공산군 만행에 대한 증오심</p>

연도	통일 정책	교육 과정 목표	교과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공산 비교 • 소련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 세계여러나라의 반공투쟁 • 북한동포 구출 • 이산가족 상봉 • 귀향의 기쁨 •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애경심 • 원호정신 고취 • 공산군 격멸의 각오 • 간첩에 대한 고발정신 • 납치인사 유가족 동정
1972~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정착 ○ 상호교류증대 ○ 남북한 자유총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알고 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 ○ 국토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태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피남침의 죄악상 폭로 • 6.25 북피남침의 과정 •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 북한의 비참상

연도	통일 정책	교육 과정 목표	교과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방위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공비의 만행 • 공산군 만행에 대한 증오심 • 민주 공산 비교 •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투쟁 • 공산당의 종교 탄압 • 여객기 납북 • 이산가족 상봉 • 북한동포 구출 • 국군과 유우엔군에 대한 애경심 • 간첩에 대한 고발정신 • 호국용사 유가족에 대한 감사 • 납치인사 유가족 동정 • 방위성금 모금의 필요성과 참여

연도	통일 정책	교육과정 목표	교과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발전에 협력 • 예비군의 필요성과 활동 • 국가의 중요성 인식 • 민방위의 필요성과 활동 • 유신정신의 고양

(1) 統一·反共政策이 教育目標와 教科書 內容에의 反映 程度

1945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동안 反共에 關한 教育目標는 찾아 볼수 없었다.

6.25 動亂以後부터 反共政策이 教育目標에 反映되기 始作하여 一貫性과 體系性을 갖추게 된다. 勿論 그 表現에 있어서 反共→ 滅共→反共等으로의 사소한 變化는 있었으나 政府의 反共政策의 強調는 그대로 教育目標나 教育內容에 反映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統一에 關한 反映程度는 政府의 여러 차례에 걸친 政策 變遷에도 불구하고 그 內容은 教育目標와 教科書 內容에서 찾아 볼수 없었다. 統一의 必要性이나 統一을 위해서 말은바 責任을 다하자는 等의 內容은 있었으나 우리의 統一政策에 關한 內容은 全無하였다.

1973년에 있었던 教科書 改編以後 처음으로 政府의 統一에 對한 政策이 教育目標와 教科書 內容에 反映되기 始作하였다.

예를 들면 教育課程 改定의 基本方向으로 '統一에 對備하는 反共 教育'을 強調하고 7.4 共同聲明 內容이 教科書 內容에 나타나는 等이다.

또한 1973年以後의 反共政策 역시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 한다는 基本前提에 勝共·統一이라는 次元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2) 教育目標가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정도

大部分의 教育目標가 教科書內容에 反映되고 있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反映程度가 미약한 年度도 있었고 지나치게 強調된 때도 있었다. 이를 年度別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1955年; 教育目標는 잘 反映되었다.
- 1959年; 教育目標中 '共產主義의 不當성을 깨닫고 이를 분쇄하는 결의를 갖는다' 했는데 教科書 內容은 주로 정의적(情意的) 측면인 남침죄악성,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信念等으로 그 不當성을 깨닫는 데에 해당된다고 할수있는 認知的 內容은 1個 單元에 그쳤다.
- 1962年: 教育目標는 共產主義의 政治制度 전략·전술등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內容은 주로 남침죄악상, 만행에 대한 적개심, 북한주민의 비참한 생활상, 간첩에 대한 경계 등으로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만을 반복적

으로 강조하여 認知的 사실에 의한 信念化
 보다는 教化(Indoctrination)에 흐르는 指導가
 될 위험성이 컸다. 教育目標가 要求하는것중
 認知的 要素 이룰때면 "共產主義는 人間の
 基本權인 自由나 창의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
 가를 깨닫게 한다"에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고 행동적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結果적으로 教育
 目標를 充分히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 1964 : 教育目標는 教科書 內容에 그대로 反映되고
 ~ 1966 있었다.
- 1972 : 教育目標에는 "統一을 준비한 反共教育을 한다"
 ~ 1974 고 되어 있으나 그 의도한 바의 目標가 주로
 행동적 요소로 나타나 있고 체계있는 통일
 필요성이나 統一方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改定前 內容의 形式的 부분 수정
 에 그친점이 많고 새로운 내용은 時期的 必要에
 의해 삽입 강조 되었을 뿐이므로 教育目標를 充分
 히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할것이다.

(※ 부록 참조 (·: 표현 比較表 參照))

다. 年度別 教科書 內容의 比較 分析

教科書 內容을 年度別로 分析한 結果를 反共 및 統一의 必要
 性과 統一의 과정으로 나누어 그 特徵을 年度別로 比較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教育内容에 나타난 行動特性別 分類에 따라 이를 백분비(%)로 나타내어 年度마다 강조된 行動特性을 表示하였고
 다른생활교과 全体單元 數와 勝共單元的 比를 백분비(%)로 나타내어 비중을 表示하였다. 또한 学年에 따른 水準變化도 아울러 살펴 보았다.

(1) 1955年度 教科書 内容의 特徵

○ 教育内容의 要旨

북피의 6.25남침 죄악상을 알고 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統一을 이룩하여 이산 가족을 상봉하고 민족의 숙원을 성취한다.

反 共	統一의 必要性	統一의 過程
북피의 6.25남침과정/ 북피의 6.25 남침의 죄악상 폭로 //	이산가족 상봉 /	각자의무이행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학 년 \ 行動特性	인 지	정 의	행 동
저학년 (1 , 2)		50	50
중학년 (3 , 4)			100
고학년 (5 , 6)			
전체비율 (%)		40	60

승공단원

: 12.8% ($\frac{5}{39}$)

전체단원 (1 , 2 , 3 학년)

- 内容面 ○ 6.25 당시의 직접적인 경험을 살려서 共産党에 대한 적개심과 統一을 爲한 努力을 해야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 아동들은 직접 전쟁을 체험하여 共産党이 무엇 인지는 모르나 피난 생활의 어려움, 共産党的 만행을 전해 듣고 보았으므로 单元名도 자연히 피난 이야기 (1 학년), 외할머니 (2 학년), 군대 아저씨 (2 학년) 착한 아저씨 (3 학년) 등 아동과 직접 관련되는 生活素材를 택했다는 것이 特徵的이다.
- 水準別 ○ 2 학년과 3 학년에서의 ' 군대 아저씨 ' 와 ' 착한 국군 아저씨 ' 는 거의 같은 내용을 같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 행동 특성별 ○ 주로 정의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 공산군을 미워하고 이땅에서 몰아내야 하며, 국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정답게 대한다 " 등이다.

(2) 1959年度 教科書 内容의 特徵

○ 内容要旨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을 알고, 자유대한의 우월성을 인식하며 북한동포를 구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통일이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원호정신을 가지며 세계여러나라와 함께 반공대열에 선두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반 공	통일의 필요성	통 일 의 과 정
6.25 북괴남침의 과정 / 6.25 북괴남침의 최악상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 실정 비교 /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	이산가족 상봉 / 북한동포 구출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 // // 유엔군에 대한 감사 / 의무이행 / 원호정신 고취 / 세계여러나라의 반공운동 / (아시아 반공대회) 세계여러나라의 반공투쟁

학 년 \ 행동특성	인 지	정 의	행 동
저 학 년		40	60
중 학 년		66.7	33.3
고 학 년	45	55	
전 체 비 율 (%)	20	53.3	26.7

$$\frac{\text{승공단원}}{\text{전체단원}} \approx 7.6\% \left(\frac{15}{199} \right)$$

○ 내용면

- ① 주로 국군에 대한 애경심을 다루는 가운데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였다.

② 순수 반공에 대한 관련 내용은

1학년에 6.25 때 이야기, 2학년 외할머니, 5학년 아시아 반공대회, 6학년의 자유와 노예, 헝가리의 반공 투쟁 뿐이다.

○ 수준별

가. 특히 6학년의 자유와 노예 단원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다룬것이 특기할만 하다.

이단원은 특히 수준에 있어서 전학년의 난이도 분포에 비추어 볼때 상당히 높은 難度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1)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은 어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가?

- 국민이 다같이 일을 해야 한다.
-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지로 어떤일이 일어 나는가?

(3) 공산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보는가?

(4) 공산세계에서는 국민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감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5) 공산사회는 어떻게 해서 그들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가?
등의 광범위하고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다루어 학년별 계열성을 고려하지 않은감이 있다.

국군에 대한 애경심은 거의 같은 수준의 반복적 내용이였다.

○ 행동특성별

- 6학년 자유와 노예 단원에서는 상당히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그밖의 학년에서는 주로 정의적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3) 1962年度 教科書 內容의 特徵

○ 內容要點

共産党的 6.25 南侵時 저지른 罪惡狀을 폭로하고 共産北韓의 비참한 생활상을 強調했으며 民主·共産 比較를 통한 民主主義 우월성을 고취하여 勝共에 對한 決意를 가다듬어 共産 격멸의 信念과 國軍에 對한 애경심을 갖고 호국용사들의 유가족을 돕고 간첩색출에 對한 경각심을 높이며 각자 의무에 充實하여 이땅에 共産主義를 박멸하여 統一을 完成한다.

反 共	統一의 必要性	統 一 過 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북피남침의 죄악상 폭로 ////// ○ 공산북한의 비참상 //////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민주·공산비교// ○ 공산군과 국군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의 상봉/ ○ 북한동포의 구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군 격멸/ ○ 원호정신 고취/ ○ 국군에 대한감사////// ○ 각자의무에 충실/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유엔군에 대한 감사/ ○ 무력 멸공통일/

학년 \ 행동특성	인 지	정 의	행 동
저 학 년		66.7	33.3
중 학 년	10	60	30
고 학 년	33.3	66.7	
전 체 비 율 (%)	14.5	64	21.5

$$\frac{\text{승공단원}}{\text{전체단원}} \approx 19.4\% \left(\frac{43}{222} \right)$$

○ 내용면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을 강조하는 단원을 대폭 강화했으며 북한사회의 비참상과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강화하는 단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改定前의 7.6%에서 19.4%로 승공관련단원이 증가되었다.

○ 수준별

학년에 따른 수준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2학년이나 6학년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또는 6.25 북괴남침시의 죄악상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 행동특성별

전체의 64%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 인지적 要素를 다룬 내용조차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4) 1964 ~ '66年度 教科書 內容의 特徵

○ 內容要旨

北韓의 비참상을 폭로하고 6.25 남침시의 죄악상을 폭로하여 北韓 共産黨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간첩에 대한 경각심과 국군에 대해서 애경심을 갖도록 하고 유엔군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했으며 세계 반공대열에 앞장서서 공산당을 격멸하여 北韓동포를 구출함으로써 이산가족을 상봉하고 승공통일을 이룩한다.

※ ///표는 빈도

반 공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북한의 비참상 /// /// /// 남북한 비교 /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 /// /// 북괴의 간첩남파 // 공산군 만행에 대한 증오 심 // 민주 공산 비교 ///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북괴의 6.25 남침과정 / 북한의 반공투쟁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이산가족 상봉 // 북한동포구출 /// /// 귀향의 기쁨 / 북한어린이 구출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 원호정신 고취 // 납치인사 유가족동정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유엔군에 대한 감사 // 공산군 격멸 /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나라의 반공운동 / (아시아 반공대회)

학 년 \ 행동특성	인 지	정 의	행 동
저 학 년		77.8	22.2
중 학 년		66.7	33.3
고 학 년	28.6	64.3	7.1
전 체 비 율 (%)	13.6	66.1	20.3

$$\frac{\text{승공단원}}{\text{전체단원}} = 26\% \left(\frac{59}{227} \right)$$

○ 내용면

- ① 北韓 공산집단이 과거에 저질렀던 6.25 남침과 당시의 만행을 주로 다루었다.
- ② 북한사회의 비참한 생활상을 다루어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 시켰는데 이러한 공산당의 과거나 현재의 공산당의 만행을 다룬 부분이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 ③ 반공 내용만을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체제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 수준별

反共부분에 관한 학년별 수준 고려가 부족하다

예를들면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 6학년의

"북한의 정치와 생활", "자유와 노예"와 연결되는 저학년 또는 중학년 내용과 관련성이 미약하다.

○ 행동특성별

가동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 전체의 47%에 해당된다.

(5) 1966 ~ '67年度 教科書 內容의 特徵

○ 內容要旨

북한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고 이와 같은 결과가 모두 공산당 때문임을 인식하고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과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우리국군은 해외에서 남의나라를 도우며 공산당과 싸우고 있음을 안다.

반	공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북한의 비참상 공산군 만행에 대한 증오심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민주·공산 비교	북한동포구출 이산가족 상봉	북한동포구출 이산가족 상봉	통일에 대한 굳은 신념 군인에 대한 애경심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 운동

※ 1966 ~ '67年度는 23個 補充 單元만을 分析 했으므로 学年別 行動 特性 分類를 省略함.

○ 내용면

1964 ~ '66년에 걸쳐 개정된 승공통일 内容에 '66 ~ '67년에 걸쳐 무려 23個单元이 補充되었다.

67년에는 도덕과 전체단원수와 승공통일 관련단원의 비율은 26%에서 36.2%로 보충되기전보다 10% 가량 증가하였다.

보충된 内容에서 주로 북한의 비참한 실정을 폭로하고 (8個单元) 월남에서 국제평화를 위해 애쓰는 국군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 (5個单元) 2학년에서 처음으로 統一의 問題를 主題로 한 单元인 '통일의 배'가 設定되었다.

○ 수준별

북한의 비참상을 알리는 内容이 대폭 증가하여 같은 内容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발견 할수 없었다.

○ 행동특성별

북한의 비참상을 알리는 内容은 情意的 次元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6) 1973 ~ '74年度 教科書 内容의 特徵

○ 内容要旨

공산당의 독재로 인해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고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여 그들의 거짓선전과 실재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들 이론의 모순과 나아가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민주주의에 의한 승공통일
노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민족중흥을 이룩한다.

반 공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p>소련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공산당의 종교 탄압 / 무장공비의 만행 //// 여객기 납북 /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 /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 6.25 북괴남침과정 // 민주 . 공산 비교 //// 북한의 비참상 ////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 세계여러나라의 반공 투쟁 //</p>	<p>이산가족 상봉 //// 북한동포구출 ////</p>	<p>국군에 대한 애경심 //// 호국용사에 대한 감사 // 유엔군에 대한 감사 / 납치인사 유가족 위로 / 방위성금 모금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우리나라 발전에 노력 / 예비군 // 국가의 중요성 / (적화된 베트남) 민방위 / 유신정신의 고양 /</p>

학년 \ 행동특성	인 지	정 의	행 동
저 학 년	11.2	44.4	44.4
중 학 년	14.5	52.2	33.3
고 학 년	40	40	20
전 체비율 (%)	25.45	45.45	29.0

$$\frac{\text{승공단원}}{\text{전체단원}} = 22.1\% \left(\frac{55}{249} \right)$$

○ 내용면

- ①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축소 시켰다.

<예> ; 삭제된 내용 표현

2 - 1 아저씨 제삿날 ; 공산군에게 맞은 것이 병이 되어
끝내 돌아가셨다.

3 - 1 북쪽의 동물농장 ; 농장 동물들은 애써가꾼 무, 배추
를 모두 중앙의 공산당 우두머리에게 빼앗기고
찌꺼기만 먹어야 했습니다.

3 - 2 파랑대문집 ; 공산당이 붙들어 가는것은 무슨 까닭
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4 - 1 수남이네집 라디오 ; 말은 같지만 공산당은 정직한
말은 하지 않고 언제나 거짓말이나 나쁜말만
한다.

4 - 1 옥수수밭 ;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4 - 2 월남해 온 인수배 ; 소나 말을 부려 먹어도 먹이기는 하는 법이다 . 그러나 죽도록 일을 해도 먹을수 없는게 북한이다 .

5 - 2 연못가의 자두나무집 ; 양식이 없다고 하자 어머니들 총으로 쓰러뜨리고

5 - 2 북으로 가는길 ; 밤중에 슬그머니 환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는 내버리기도 했다 .

② 중공군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삭제 했다 .

< 예 >

3 - 2 착한 얼굴들 ; 이것이 다 중공오랑캐 때문이다 .

5 - 2 아시아 반공대회 ; 중공이 조그만 나라들 못살게 군대요

③ 북한 공산당과 대등한 대결의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

1 - 2 외할머니 ; 공산군을 부찌르고 → 공산군이 미웠고

2 - 2 통일의 배 ; 북한공산당은

자꾸 간첩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 글썄

말이다 . 그

렇지만 나쁜

짓은 오래가지는

못하는 법이야

북한 공산당은 우리의

참뜻을 모르는체

하지 않아요 . 글썄

말이다 . 그렇지만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지

2 - 2 인수의 선물 ; 국군아저씨들이
공산군과 맞서
고 있는것이

→

국군아저씨들이
휴전선을 지키
고 있는것이

④ 우리의 발전상과 민주주의 우월성에 자신을 가진 내용이 많았다.

6 - 1 사라예보의 거리풍경

6 - 2 자유와 노예

⑤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세를 강조하였다.

5 - 1 반공소방훈련

5 - 1 향토예비군

⑥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내용이 많았다.

6 - 2 자유와 노예

6 - 2 북한의 정치와 생활

⑦ 통일의 굳은 신념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2 - 2 통일의 배

3 - 1 할머니의 생신

5 - 2 판문점에서 본것

⑧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데 과거의 자료가 아니라 현실적인 북괴의 만행과 북한의 사회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데 노력했다.

4 - 1 여객기 납북

5 - 2 북송 재일교포의 편지

6 - 2 북한의 정치와 생활

○ 수준별

- ① 아동의 行動特性을 認知, 情意行動의 各 領域에 걸쳐 비교적 골고루 배분하여 강조하는 내용 구성을 하였다.
- ② 学年別 수준 配慮도 있었다.

○ 行動特性別

- ① 극단적으로 적개심만을 고취하는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다.
- ② 6학년 2학기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단원에서 공비들의 잔인 무도함을 表現함에 있어 "공비들에게 눈물이 있을리 없었다. 그들은 일가족을 바깥으로 끌어 내더니 대검을 빼어들고 어린이들을 마구 찌르기 시작하였다. 또 공비들은 두 손가락으로 승복이의 입을 찢은 다음, 돌맹이로 쳐서 고꾸라 뜨리고 다시 대검으로 찌르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흉칙한 짓을 저질렀다"고 表現하여 적개심을 극도로 유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兒童의 健全한 情緒를 해칠 우려가 없지 않으며 공포감, 패배의식 등으로 발전할 念慮 또한 없지 않다.

Ⅲ . 結 論 및 建 議

1 . 要 約 및 結 論

앞에서 제시된 文 獻 및 教 科 書 內 容 的 分 析 結 果 를 간 결 히 要 約 하 고 祖 國 的 統 一 을 為 한 우 리 의 統 一 勝 共 教 育 構 案 에 시 사 점 을 지 적 하 려 한다 . 要 約 은 먼 저 文 獻 分 析 結 果 다 음 에 教 科 書 分 析 結 果 그 리 고 兩 結 果 的 比 較 的 順 으 로 提 示 될 것 이 다 .

가 . 統 一 政 策 과 統 一 · 反 共 教 育 目 標 的 變 遷 過 程 .

統 一 政 策 的 變 遷 過 程 은 ① 反 共 武 力 統 一 政 策 → ② UN 監 視 下 南 北 總 選 에 의 한 統 一 政 策 → ③ 平 和 的 統 一 政 策 → ④ 段 階 的 平 和 統 一 政 策 등 으 로 要 約 되 며 統 一 · 反 共 教 育 政 策 的 變 遷 過 程 은 ① 民 主 市 民 教 育 的 確 立 → ② 滅 共 救 國 精 神 的 確 立 → ③ 反 共 教 育 的 強 化 確 立 → ④ 統 一 教 育 確 立 등 으 로 要 約 된 다 .

統 一 政 策 및 教 育 政 策 的 變 遷 過 程 을 重 要 한 政 治 的 變 動 期 를 中 心 으 로 하 여 4 期 로 區 分 해 보 았 을 때 第 1 期 (建 國 後 ~ 6.25 動 亂) 와 第 2 期 (6.25 ~ 1961) 에 는 統 一 政 策 이 教 育 政 策 에 正 確 히 反 映 되 어 있 지 않 고 있 으 며 第 3 期 (1962 ~ 1971) 에 도 反 共 政 策 은 教 育 政 策 에 反 映 되 어 있 으 나 統 一 政 策 은 反 映 되 고 있 지 못 하 다 . 第 4 期 (1972 ~ 現 在) 에 와 서 統 一 · 反 共 政 策 이 教 育 政 策 에 反 映 되 기 시 작 하 였 다 .

統 一 · 反 共 政 策 과 教 育 政 策 이 教 育 目 標 에 反 映 되 는 關 係 는 더 우 기

一貫성이 없다. 教育目標水準에서 反共教育이 反映되기 시작한 時期는 第2期 부터이며 그후 統一政策과 教育政策의 變遷에도 불구하고 계속 消極的이며 感傷的인 反共意識은 教育目標에서 一貫되게 강조되고 있다.

本研究에서 区分한 第4期の 시작시기인 1972年度 부터 統一政策이 教育政策으로 反映된것은 물론 教育目標와 內容에 까지 一貫되게 反映되기 始作하였다. 그 한 例를 제시하면, 教育目標로서 제시한 ' 国土統一을 平和的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태도 육성'은 段階的 平和統一政策과 一貫성이 있는 目標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教育目標는 ①民主市民意識과 民族意識育成→ ②滅共救國意識→ ③反共意識→ ④反共·統一意識으로 變遷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저에는 反共意識의 高취가 계속 一貫되게 표시된 것으로 評価된다.

第1期에 제시된 民主市民意識과 民族意識의 강조로 反共意識을 間接적으로 表示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市民意識과 民族意識의 強調로 國家意識에 混沌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고 보면 結果的으로 反共意識의 함양에도 弱點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統一·反共教育目標와 內容間의 關係

統一·反共教育의 目標는 共產主義의 모순, 祖上分斷의 原因 北傀의 만행, 北韓住民의 實生活相 等を 알게 하고 北傀에 대한 적개심 내지 警戒심을 갖게하여 統一을 위한 노력의 必要性을 깨닫게 하는것으로 一貫되어 있다.

이러한 教育目標가 수립되고 그目標가 教科書 內容에 反映되기

시작한 時期는 1955年度 부터이며, 그 이후에도 年代에 따라서 強調한 教育目標와 內容은 다소 다르다.

그러나 계속 一貫되게 강조한 教育目標와 內容은 北傀共產主義者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는 점이다.

이같은 教育目標는 教科書 內容에도 잘 反映되고 있으나 그밖의 教育目標는 教科書 內容에 잘 反映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共產主義 부당성과 理論의 모순성을 깨닫고 비판할 수 있는 能力을 육성한다는 教育目標는 1959年度이래 가끔 되풀이되어 제시되고 있으나 教科書 內容에는 그러한 目標가 反映되어 있지 않고 있다.

統一·反共教育의 目標가 보다 体系的으로 定立되고 이들 目標가 各級學年의 教科書에 反映되기 始作한 時期는 1973年度 부터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 時期의 統一·反共教育의 目標는 統一政策과도 一致하는 것으로 우리의 統一·反共教育의 体系化는 이 時期부터 시도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다. 統一·反共教育內容의 變遷過程.

1955年以來 여러 차례 改編된 教科書에 反映되고 있는 統一·反共教育의 內容은 一般的으로 말하여 國內外 情勢의 變動과 統一政策의 變遷. 그리고 統一·反共教育의 政策과 目標들이 變化함에 따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教育內容의 變遷은 주변 環境의 變化와 一貫性있게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散發的이고 斷片的인 反應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동안 크게 變化되지 않고 계속 一貫되게 강조된 內容은 '북
괴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는 內容들이다. 따라서 북괴의 죄악상
과 북한의 비참한 生活相을 밝히는 內容들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비교적 계속 강조되고 있는 內容은 '원호정신' 과 '간
첩에 대한 고발정신' 그리고 '국군에 대한 감사' 등이다.

國內外 情勢 變動에 따라 教科書 內容이 修正, 補完된 부분도 상
당수 있으며 그중 두드러진 것이 월남 파병후와 월남 共產化後
와 關聯된 內容들이다. 그러나 統一政策과 反共教育의 目標의 轉
換으로 因하여 教科書 內容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다만 앞
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73年度부터 統一政策과 教育目標, 그리
고 教科書 內容들이 어느정도 一致되고 教科書 內容도 보다 體系
化 되기 시작했다.

統一·反共教育에 關한 教科書 內容의 變遷過程을 1955年度後
時期別 特徵을 中心으로 要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時 期 区 分	特 記 内 容
第 1 期 (1955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에 대한 애경심. • 6.25 북피남침의 죄악상폭로. • 북피의 6.25 남침과정.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의 실정비교. • 원호정신 고취. •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투쟁. • 공산주의 이론모순 비판. • 의무이행 (통일을 위한 노력). • 이산가족 상봉, 북한동포구출 (통일의필요성)
第 2 期 (1962 ~ 1966)	上同 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공산 비교.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第 3 期 (1966 ~ 1972)	上同 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송교포의 비참상. • 베트남을 돕는 국군. • 무장공비들의 만행 (김신 조일당 울진삼척간첩침투)
第 4 期 (1972 ~ 현재)	上同 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민방위대의 필요성.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내용축소.

라. 結論

前章과 本章에서 제시한 結果와要約을 토대로 本研究에서 밝힐수 있는 要點을 項目別로 提示하여 結論으로 삼으려한다.

(1) 統一·反共教育의 內容을 統一政策과 教育目標를 体系的으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2) 統一·反共教育의 內容이 国内外 情勢變動에 민감하게 反應하지 못하고 있다.

(3) 統一·反共教育의 目標가 初等學校教育水準에 맞게 具體化되고 体系化되어 있지 못하다.

(4) 統一·反共教育 內容에 感情的 次元을 강조하는 內容의比重이 압도적이며 그다음이 行動的 次元의 內容들이다.

(5) 統一·反共教育 內容에서 認知的 次元이 크게 欠如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感情을 자극하는 內容은 많고 반복되고 있으나 思考를 자극하여 판단하게 하는 內容이 적다.

(6) 統一·反共教育 內容水準이 다른 教科內容에 비해 낮다.

(7) 事實에 입각한 知的 情報提供을 위한 內容이 크게 欠如되어 있다.

2. 建 議

研究結果를 土臺로 統一·反共教育의 改善을 위해 考慮되어야 할 點을 項目別로 要約 提示하면 다음과같다.

가.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간에 一貫性 있는 教育目標의 定立

이 要望된다.

나. 統一·反共教育의 上位目標와 一貫性있는 初等學校教育을 위한 下位目標들이 보다 具體的이며 系列性和 連繫性있게 定立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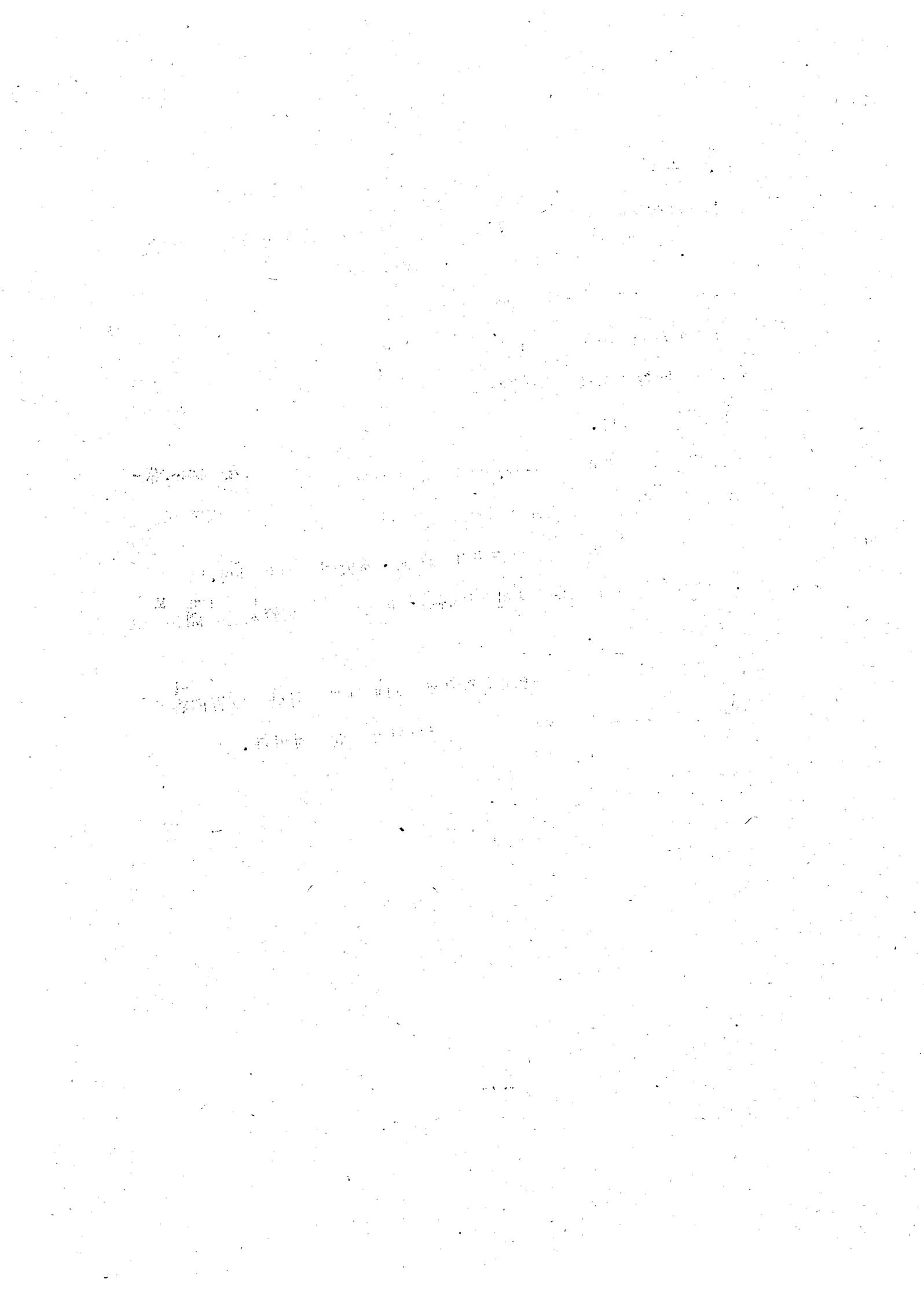
다. 統一·反共教育의 目標를 가장 잘 達成할 수 있는 教育內容의 選定과 組織을 위한 研究가 要望된다.

라. 教育內容水準을 各級學年의 知的水準에 맞게 높이고 系列化할 必要가있다.

마. 國家觀, 北韓觀, 統一觀, 反共觀, 安保觀 등을 調和시켜 知·情·意의 各次元에서 統合된 教育의 成果를 높일수 있는 教育內容을 組織하고 이에맞는 教育方法의 開發·研究가 必要하다.

바. 初等學教 兒童들을 위한 教科書 以外의 學習資料를 開發 보급할 必要가있다.

사. 앞으로 예상되는 正統性 對決에 對備하기 위한 教育內容이 開發되고 初等學校 教科書에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附

録

1. 年度別 教科目 및 時間配当 基準

2. 年度別 教科書 内容에 反映된 表現比較

(1967 과 1972 ~ 74 年을 中心으로)

3. 分析카아드에 依한 分析의 例

學部 新聞部 某 區部 某

本此是 早知又 內容 警務
(五二〇年 台學 47 ~ 3791 共 121)

附 附錄 附錄 附錄 附錄

<表1>

1945年度 教科目 및 時間配当

교과목 \ 학년	1	2	3	4	5	6
公 民	2	2	2	2	2	2
国 語	8	8	8	7	6	6
歷 史	—	—	—	—	2	2
地 理	—	—	—	1	2	2
算 數	6	6	7	5	5	5
理 科	—	—	—	3	3	3
体 操	4	4	5	3	3	3
音 樂	—	—	—	2	2	2
習 字	—	—	1	1	1	1
圖畫·工作	2	2	2	남 3 여 2	남 4 여 3	남 4 여 3
料理·裁縫	—	—	—	여 3	여 3	여 3
実 科	—	—	—	남 3 여 1	남 3 여 1	남 3 여 1
計	22	22	25	30	33	33

<表. 2 >

1946 年度 教科目 및 時間配当

학년 교과목	1	2	3	4	5	6
国 語	360	360	360	360	320	320
社会生活	160	160	200	200	남 240 여 200	남 240 여 200
理 科						
算 數	160	160	200	200	200	200
保 健	200	200	200	200	200	200
音 樂	80	80	80	80	80	80
美 術	160	160	160	160	남 160 여 120	남 160 여 120
家 事	—	—	—	—	여 80	여 80
합	1,120 (28)	1,120 (28)	1,200 (30)	1,360 (34)	1,360 (34)	1,360 (34)

<表3>

1951年度 教科目 및 時間配当

교과목 \ 학년	1	2	3	4	5	6
国語	245	245	245	245	245	245
社會	140	140	175	175	210	210
理科	—	—	—	140	140	140
算數	140	140	175	175	175	175
保健	35	35	35	35	35	35
音樂	35	35	35	35	35	35
美術	35	35	35	35	남 105 여 70	남 105 여 70
家事	—	—	—	—	70	70
計	630	630	700	840	남 945 여 980	남 945 여 980

<表 4 >

전시 교재 발간 이후 教科目 및 時間配当

교 과 목 \ 학 년	1	2	3	4	5	6
國 語	245	245	245	245	245	245
社会生活·理科	140	140	175	175 140	210 140	210 140
算 数	140	140	175	175	175	175
体 育·保 健	35	35	35	35	35	35
音 樂	35	35	35	35	35	35
美 術	35	35	35	35	남 105 여 70	남 105 여 70
家 事	—	—	—	—	70	70
計	630	630	700	840	남 945 여 980	남 945 여 980

<表 5 >

1955年度 教科目 및 時間配当

시간수 교과목	1	2	3	4	5	6
国 語	25~30% (240~290) 분 분	25~30% (250~300) 분 분	27~20% (290~220) 분 분	20~23% (220~260) 분 분	20~18% (240~220) 분 분	20~18% (250~220) 분 분
算 數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0 (180~120)	15~10 (190~120)
社会生活	10~15 (100~140)	10~15 (100~150)	15~17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自 然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0 (120~190)
保 健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音 樂	12~10 (120~100)	15~10 (150~100)	8~10 (190~110)	8~5 (90~80)	8~5 (100~60)	8~5 (100~60)
美 術	10~8 (100~80)	10~8 (100~80)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実 科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特別活動	5~2 (50~20)	5~2 (50~20)	5~8 (50~80)	5~10 (60~100)	5~10 (60~120)	5~10 (60~120)
計	100% (960분)	100% (1,000분)	100% (1,080분)	100% (1,120분)	100% (1,200분)	100% (1,240분)
1년간 총 수업시간수	840시간 (24)	875시간 (25)	945시간 (27)	980시간 (28)	1,050시간 (30)	1,085시간 (31)

<表 6 >

1963 年度 教科目 및 時間配当

학 년 구분		1	2	3	4	5	6
		교 과	国 語	6-5.5	6-7	6-5	5-6
算 數	4-3		3-4	3.5-4.5	4.5-4	4-5	5-4
社 会	2-2.5		3-2	3-4	4-3	3-4	4-3
自 然	2-2.5		2-2.5	3.5-3	3-3.5	4-3	4-3
音 樂	1.5-2		2-1.5	2-1.5	1.5-2	2-1.5	1.5-2
体 育	2.5-3		3-2.5	3-3.5	3.5-3	3-3.5	3.5-3
美 術	2-1.5		2-1.5	2-1.5	1.5-2	2.5-1.5	1.5-2.5
実 科					2-1.5	2.5-3	2.5-3.5
反共道德	1		1	1	1	1	1
計	21	22	24	26	28	28	
特別活動	5-10%	5-10%	5-10%	5-10%	5-10%	5-10%	

<表 7> 1

1973年度 教科目 및 時間配当

학 년 구 분		1	2	3	4	5	6
		교 과	道 德	70 (2)	70 (2)	70 (2)	70 (2)
国 語	210 (6)		210 (6)	210 (6)	210 (6)	210 (6)	210 (6)
社 会	70 (2)		70 (2)	105 (3)	105 (3)	140※ (4)	140※ (4)
算 数	140 (4)		140 (4)	140 (4)	140 (4)	175 (5)	175 (5)
自 然	70 (2)		70 (2)	105 (3)	140 (4)	140 (4)	140 (4)
体 育	70 (2)		105 (3)	105 (3)	105 (3)	105 (3)	105 (3)
音 樂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美 術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実 科					70 (2)	70 (2)	105 (3)
計		770 (22)	805 (23)	875 (25)	980 (28)	1050 (30)	1085 (31)
特 別 活 動		35 ~ (1 ~)	35 ~ (1 ~)	52.5 ~ (1.5 ~)	52.5 ~ (1.5 ~)	52.5 ~ (1.5 ~)	52.5 ~ (1.5 ~)

2.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表現比較

(1967 과 1972 ~ 1974 年을 中心으로)

단 원	1967 年 內容	1972 ~ 1974
1-2 의할머니 2-1 아버지 제삿날 할아버지 생신	공산군을 무찌르고 * 아버지를 내놓으라고 야단을 쳤단다. * 공산군들에게 맞은것이 병이 되어 끝내 오래사지지 못하 고 돌아가셨어. * 성환이는 혼자 하루바삐 공 산군을 쳐부수고 아저씨원수 를 갚아드려야지 * 그런 훌륭한 할아버지 를 왜 공산군은 끌고 갔을까	공산군이 미웠다 단원삭제 * 공산군에게 끌려가신 할아버지
2-2 통일의 배 인수의 선물	* 그런데도 북한 공산당 은 자꾸 간첩만 보내 고 있지 않아요? * 글썸 말이다. 그렇지만 그런 나쁜 짓은 오래 가지는 못하는 법이야 * 인수는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 했습니 다. * 국군 아저씨들이 공산 군과 맞서고 있는 것 이	* 그런데도 북한 공산당 은 우리들의 참뜻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아 요? 글썸 말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평화적인 통 일이 이루어 지는날이 오겠지 인수는 북한의 아이들 이 가없게 생각되었습 니다. 국군아저씨들이 휴전선 을 지키고 있는 것이
3-1 군은결심	* 공산군은 모두 강도나 다름 없단다.	

단 원	1967	1972 ~ 1974
<p>3-1 경수아버지 북쪽의 동물농장</p>	<p>공산군은 그런짓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공산군들은 죄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못살게 굴었는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어머니, 우리들이 빨리 커서 그런 나쁜 공산군을 한사람도 없게 만들겠어요.</p> <p>* 중공군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이야기</p> <p>* 농장 동물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로까지 채찍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농장감독이나 중앙의 공산당 우두머리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칠줄 모릅니다.</p> <p>* 죄는 모조리 농장동물에게만 들렸습니다.</p> <p>* 일하는 동물들은 애써 가꾼 무우, 배추는 모조리 중앙의 공산당 우두머리들에게 빼앗기고 찌꺼기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p>	<p>어머니 우리들이 빨리 커서 그 나쁜 북한공산군을 우리나라에서 한사람도 없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고생하고 지내는 사람들을 구해 내겠어요.</p> <p>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단 원	1967	1972 ~ 1974
<p>3-1 못먹는 생선</p> <p>밤중의 가재잡이</p>	<p>* 소련이나 중공이라면 북한공산군에게 무기를 주어 6.25사변을 일으키게 한 나라란다. 어부들이 나쁜게 아니라 공산당들이 나쁜거야.</p> <p>* 북한에선 고기잡이 배나 잡은 고기는 모조리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거야. 어부들은 자기 손으로 잡은 고기를 한마리도 먹어 보지 못하고 그대로 공산당에 빼앗기는 거지.</p> <p>* 여기는 북한입니다. 오랫동안 고기나 생선을 못먹어서 여기서는 누구나 가재를 잡아서 끓여 먹는답니다.</p>	<p>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p>3-2 파랑 대문집</p>	<p>* 공산당이 붙들어 가는것은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란다.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붙잡아 가고 또 이름있는 학자나 기술있는 사람을 부려 먹으려고 데려가기도 했단다. 끌려간 사람들은 말 안듣는다고 그들에게 죽음</p>	<p>단원 삭제</p>

단 원	1967	1972 ~ 1974
<p>3-2 착한 열 굴들</p> <p>할아버지 들으세요</p>	<p>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살 았는지 죽었는지 알수가 없단다.</p> <p>* 이것도 다 증공오랑캐 때문이다. 그놈들만 나오 지 않았더라면 북한도 해방이 되어 고향에서 편안히 살수 있었을 것 을 이 고생이구나.</p> <p>* 세상에 왜 그런 나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p>	<p>단원 삭제</p> <p>이곳에는 동네마다 경로 당을 세워 할아버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시는데 북한에서는 노인들을 일터에 끌고나 가 고된일을 시킨다면서 요.</p>
<p>4-1 수남이네 집 라디 오</p> <p>어느간첩 의 수기 옥수수밥</p>	<p>* 말은 같지만 공산당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거짓말이나 나 쁜말만 한단다. 공산당이 얼마나 거짓말장이 인지 는 어머니가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잘 안단 다.</p> <p>* 남한</p> <p>* 가족끼리 한데 모여</p>	<p>단원 삭제</p> <p>한국</p>

단 원	1967	1972 ~ 1974
<p>4-1 수복지구 의 어린이</p> <p>싸움터에서 만난 형제</p> <p>베트남소년 과 국군</p> <p>로크론요새 를 무찌른 국군용사들</p> <p>용감한 공 군 아저씨</p>	<p>사는 것도 안된다고 여 기 저기: 흩어져 살게했 습니다. 불평이 있어도 말했다가는 큰 욕을 당 한다는 것입니다.</p> <p>그래서 마음대로 말하거 나 서로 모여 앉아 이 야기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종교를 믿을 수도 없고 친구끼리 모여 마 음을 터놓고 의논도 할 수 없었습니다.</p> <p>그야말로 생지옥이었읍 니다.</p> <p>* '빠꾸기 노래'</p>	<p>단원 삭제</p> <p>'새마을 노래'</p> <p>단원 삭제</p>

단 원	1967	1972 ~ 1974
4-1 벤플리이 트장군과 그의 아들		단원 삭제
4-2 월남해 온 인수네	<p>*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고향에서 못살게 내쫓는 것이 공산당인가.</p> <p>*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몽땅 바쳐도 현물세에 미치지 못했다. 현물세를 받아간 뒤에도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니 뭐니 하면서 곡식을 헌납해야한다고 또 거두어갔다. 그 뒤에도 민청회바니 뭐니하며 또 거두어갔다 이런 일은 북한이 아니고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았다. 소나 말을 부려먹어도 먹이기는 하는 법이다. 그러나 죽도록 일을 해도 먹을 수 없는게 북한이었다.</p>	단원 삭제
귀순해온 공산군 비 행사		나는 이 지옥같은 곳을 떠나 월남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의 소식도 모르는 채 떠나기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결

단 원	1967	1972 ~ 1974
4-2 석석하게	*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는 월남해 온 소년	심은 끌어졌습니다. (첨가된 내용) 단원 삭제
5-1 북한소식	* 농민에게 땅을 거저 나누어 주었다고 떠들던 공산당은 이제는 땅은 저희들이 가지고 농민들은 국가의 품팔이군으로 만들고 말았다. 노동자농민을 위한다는 공산당정신은 언제나 이런거야 소련이나 중공사람들도 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꺼야. 온세계를 정복하려고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전쟁 준비만을 일삼으니까 말이지.	단원 삭제
자유의 집 창복아저씨의 다리	* 공산당들은 저희들끼리 숙덕숙덕 의논을 하더니 창복아저씨를 부르더니 무서운 일을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따가 해가지고 어두워지거든 이 회사와 저	단원 삭제

단 원	1967	1972 ~ 1974
<p>5-1 연못가의 자두나무집</p> <p>거룩한죽음</p> <p>투이 호아의 국군부대</p> <p>중대 목숨을 구한 경찰기</p>	<p>건너 국민학교 건물에다 불을 놓아</p> <p>* 공산군 네 사람이 와서 밥을 지어 내라고 하더란다. 양식이 없다고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더니 공산군들은 그의 어머니를 총으로 쓰러뜨리고 조금있는 양식까지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다고 한다.</p>	<p>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p>5-2 교아원 같은 탁아소</p>	<p>* '교아원 같은 탁아소'</p>	<p>'북한의 탁아소' 한 가정의 단란한 가족 생활은 생각조차 할수 없게하고 부모형제도 몰라 보게하는 까닭은 무엇인가.</p> <p>그것은 어려서부터 공산 당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대 한민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넣어</p>

단 원	1967	1972~1974
<p>5-2 마음의 성묘</p> <p>순이가 겪은 일</p> <p>돌아온 수동이 복으로 가는 길</p>	<p>* 공산북한에서야 명절이나 제대로 쇠었겠니. 거기 있었더라면 제사도 못지내고 성묘도 제대로 못했을텐데.</p> <p>부자간에 서로 감시하게 하고 이웃끼리도 서로 고발하게 하는 공산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인정의 꽃은 필수 없는 커지묘</p> <p>* 순이 아버지는 이남으로 월남했고 순이 할아버지는 목사노릇을 하다 잡혔으니 순이네 집은 가장 몹쓸 반동분자의 집입니다. 그런 반동 분자의 딸 순이와 같이 공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p> <p>* 환자까지도 채찍질하여 끌고가던 공산군들은 드디어 무서운 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p> <p>그들은 밤중에 슬그머니 환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는 내버리기도 했던</p>	<p>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첨가 내용)</p> <p>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단 원	1967	1972 ~ 1974
<p>5-2 아버지가 겪으신 일</p> <p>관문점에서 본것</p>	<p>것입니다. 납치인사들은 북한공산괴뢰에게 짐승과 같이 마구 끌려다니며 참을수 없는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p> <p>* 아버지가 겪으신 일</p> <p>* 공산군들은 총을 휘두르며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쇠약해진 아버지들의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빨리 걷지 않으면 총대로 마구 후려 갈겼답니다.</p> <p>* 그렇다. 이 관문점을 통해서 탈출해 나온 전 북한 괴뢰군의 신문기자 이야기들 들어보면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굶주림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단다. 공산 국가라는건 원래 그런 곳이란다. 국민을 꼼작못하게 얽매어 놓고 공산당만이 활개를 치고 사는 곳이니 까 말이다. 그리고 공산당은 소련이나 중공 오</p>	<p>할아버지가 겪으신 일 (제목 바뀜)</p> <p>공산군들은 총을 휘두르며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쇠약해진 할아버지 일행의 걸음을 재촉하며 총대로 마구 후려 갈기 기까지 했습니다.</p> <p>그렇다. ... ~</p> <p>활개를 치고 사는 곳이니 까 말이다. 게다가 공산당은 전쟁준비에만 힘을 기울이니 까 국민들이</p>

단 원	1967	1972 ~ 1974
<p>5-2 베트남에 핀 꽃 아시아 반공대회</p>	<p>랑캐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겠니.</p> <p>* 공산당의 우두머리인 소 련·중공이 자꾸 조그만 나라들을 못살게 군대요 * 왜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막아야 하는지 알겠니 * 공산당은 자꾸 우리나라 를 침략하려고 해요 * 6.25사변때에도 자기들 이 싸움을 걸어놓고 지 게 되니까 휴전을 하자 고 해요. 그래놓고 지금은 몰래 싸움할 준비를 하느라고 야단이에요.</p>	<p>잘살수 있겠니. 왜 미국은 평화를 사랑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원자무기를 들여왔느냐. 미국이 대한민국에 원자 무기를 들여 온것은 평 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이 평화를 언제까지나 지키 려고 하는 까닭에 그렇 게 한 것이다. 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단 원	1967	1972 ~ 1974
<p>6-1 사과에 쓰여진 글</p> <p>까투산 요새 함락 작전 젊은 자 유의 투사 찬수의 소원</p>	<p>* 북한공산당은 북한땅에서 나는 수많은 사과를 모조리 소련에 바치고 그 대신 남한에 쳐들어올 무기를 들여온다는거야.</p> <p>비교 내용 없음</p> <p>* 아버지가 타 오는 배급으로는 하루에 죽세끼도 썩어먹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죽도록 일해야 보리죽도 못먹는 형편인데 북한의 노동자 농민들은 일요일도 없이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p> <p>요사이 공장에서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서 소위 하루에 15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p> <p>* 새벽 일찍 부터 밤늦게 까지 뼈를 깎듯이 일을 해도 월급을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p> <p>말조차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사회 모든 자유를 빼앗긴 사회 그것이 공</p>	<p>단원 삭제</p> <p>비교 내용 없음</p> <p>단원 삭제</p>

단 원	1967	1972 ~ 1974
<p>6-1 잘못을 깨달은 교포 철조망너 머의 마리아 끊어진 철로 할아버지 제삿날 뗏목할아 버지의 최후 38선의 소</p>	<p>산세게인 것입니다. 학교 에선 공부도 가르쳐 주 지 않고 노력 동원에만 끌어내곤 하였습니다.</p>	<p>단원 삭제 단원 삭제 비교내용 없음 단원 삭제 단원 삭제 단원 삭제</p>
<p>6-2 자유의마을 하늘아래 첫동네 어린이 지계부대 어느 반 공포로의 이야기</p>	<p>대성동 이야기 * 한치의 땅이라도 더 개 간하여 더 많은 양식을 얻으려는 생각 * 유엔 공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전우들은 쓰러 져 갔다. *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공산포로와 반공포로가 두패로 갈리어 매일처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p>	<p>단원 삭제 부족한 양식을 한톨이라 도 더 얻으려는 생각 단원 삭제 유엔 공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공산군들은 쓰 러져 나갔습니다. 내용 삭제 (부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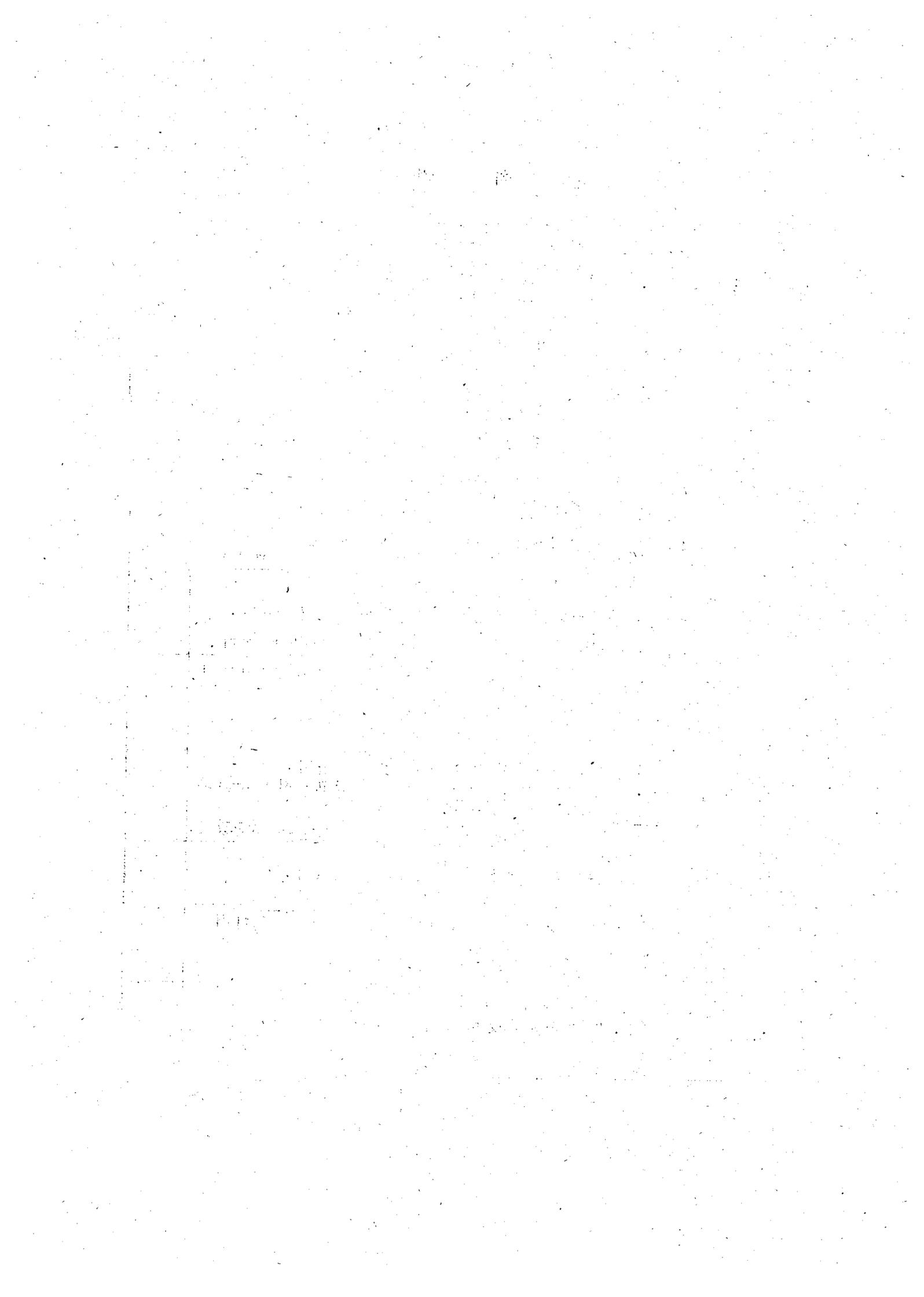
단 원	1967	1972 ~ 1974
<p>6-2 정치와 생활</p> <p>신의주 학생의거</p> <p>자유와 노예</p> <p>베트남에서 온편지 자유를 찾아 비행사</p>	<p>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p> <p>* 여러분은 흰쌀밥도 먹을 수 있고 떡도 사먹을 수 있지만 북한동포들은 쌀이 조금 섞인 옥수수들 배급 받을 뿐입니다. 장에 가봐도 떡이 없고 만약 집에서 떡을 해 먹는다면 배급을 줄이고 맙니다.</p> <p>* 식량이 부족하여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동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동포를 시켜 양곡을 화차와 배에 실어 소련으로 운해 갔다.</p> <p>* 공산주의는 다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생각을 말한다.</p> <p>* 그러면 좋지 않아요? 얼른 생각하면 그럴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p>	<p>북한동포들은 양말 한켠레도 마음대로 사신지 못하고 고무신도 떨어진 것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p> <p>땀흘려 지어놓은 양식을 기차와 배에 실어 소련으로 운반해 갔으며</p> <p>공산주의란 다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거짓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의 모든 재산을 공산당이 차지하고 국민들을 억누르며 마구 부려 먹는 독재 정치를 말한다.</p> <p>7.4 공동성명 내용 삽입 단원 삭제</p> <p>단원 삭제</p>

72 ~ 74년에 참가된 단원

학 년	단 원
1 + 2 전사회	8
2 - 1 저금통, 어디가 좋은가	
2 - 2 우리집 모금함, 반공포스터	
3 - 1 베트남을 도운 대한	
3 - 2 예비군이신 아버지	
4 - 1 늑대의 거짓말 여객기 납북	
베트남에 다녀온 오빠	
용감한 가게 할아버지	
4 - 2 용감한 송부	
보람찬 내일	
5 - 1 방공 소방 훈련	
경아가 받은 편지	
향토예비군	
상국이 아버지의 공훈	
5 - 2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일	
작은 어머니가 겪으신 일	
공비들의 증언	
공비들 자수시킨 할아버지	
6 - 1 사라예보의 풍경	
학교를 도운 국군아저씨	
하늘의 용사	
순교자	
이사가던 날	
6 - 2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분 석 카 드

교과서 명	바른 생활	출판사	고려서적	년도	1973
단원 : 주제	4. 늑대의 거짓말	학 년	4-1	페이지	27-33
소 주 제					빈도
주 제 및 주 요 내 용	내 용	1. 라디오에서 어린이 동화 낭독 2. 공산당은 늑대처럼 거짓말만하고 욕이나한다 3. 공산당은 6.25때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다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꾀어 군청 창고에 가두었다가 의용군으로 끌고갔다. 4. 공산당들은 재일교포를 속여 북한으로 끌고갔다. 북송된 교포들은 가지고 갔던 물건을 모조리 빼앗기고 나중엔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다니면서 강제로 힘든일을 하고 있다. 5. 우리는 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다.			
	목표의도	거짓선전과 공산당의 만행을 알고 직개심을 갖는다			
목표분류 (행동특성별)	인지				
	정의	1. 공산당은 늑대처럼 거짓말만 한다. 2. 공산군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국군과 싸울때 앞장 세운다. 3. 북한공산당들은 교포들을 속여 북한으로 끌고갔다.			
	행동	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다.			
표 현	거짓말 (// // // //) 강제로 끌고가서 속여서 모조리 빼앗기고, 늑대처럼				
비 고	主. I-4 (反共)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NTI-COMMUNISM EDUCATION CONTENT OF ELEMENTARY SCHOOL TEXTBOOKS

Objectives and Method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curriculum trend of anti-communism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past two decades.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of objectives, contents, and articulation of anti-communism education, the study investigates 46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s and a variety of government documents including publications from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is divided into four terms on the basis of the important political changes: 1945-1950 (Korean War), 1951-1961 (Military Revolution), 1962-1971, and 1972-present.

The textbooks subjected to the analysis were "Right Ways of Living," which were used for all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s a required course titled "Moral Education." The number of the textbooks being used at the present is two for each grade, and twelve textbooks are using at the elementary schools.

Although the textbooks were revised several time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all of the textbooks used in the period were subjected to the analysis. The reason of subjecting the textbooks "Right Ways of Living" to the analysis for this study is that the textbooks have been used in a part for the anti-communism educ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selected textbooks, an analysis card was employed, which was constructed for this study by referring to a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o an analysis scheme constructed in terms of the criterion factors of anti-communism education contents.

Policies of national unification and of anti-communism education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in each of four terms as classified above were analyzed, and the degree of reflecting the policies into the textbook content of the anti-communism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s was derived.

Results

1. Policy Trend of National Unification and Anti-Communism
1945 - '50: Anti-Communism and national unification by force.

1951 - '61: Establishment of an unified and democratic society.

1962 - '71: Unification by peaceful way.

1972 - present: Nonaggressio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 Curriculum Trend of Anti-Communism Education

1945 - '50: No explicit objective for anti-communism education.

1951 - '61: Anti-communism education as a part of moral education.

1962 - '71: Strengthening anti-communism education.

1972 - present: Conversion of the negative anti-communism education to the positive unification education.

3. Textbook Analysis

<u>Periods</u>	<u>Topics</u>	<u>Frequencies</u>
1955 - 61	o Respect for armed forces	6
	o Invasion of North Korea to South	4
	o Invasion process of North Korea to South	2
	o Comparison of South Korea to North	1
	o Support for veterans	1
	o Fights against communists in other countries	1
	o Criticism of communism	1
	o Rescue of people in North Korea	1
1962 - 66	o Invasion of North Korea to South	18
	o Miserabl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	18
	o Respect for armed forces	14
	o Rescue of people in North Korea	11

<u>Periods</u>	<u>Topics</u>	<u>Frequencies</u>
	o Hostility against communists	5
	o Comparison of democracy to communism	5
	o Appreciation of the United Nations soldiers	4
	o Communist spy	4
	o Support for veterans	4
	o Brutality of Soviet Communists	2
1966 - 72	(The following is added to the above topics.)	
	o Miserabl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	8
	o Korean Army in Vietnam	8
	o Brutality of communist guerrillas	4
1972 - present	o Invasion of North Korea to South	9
	o Communist spy	7
	o Respect for armed forces	7
	o Miserabl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	7

Periods

Topics

Frequencies

- o Brutality of communist guerrilla 4
- o Comparison of democracy to communism 4
- o Need for reserve troops and community guard troops 3
- o Importance of donation for national defense 2
- o Criticism of Communism 2

4. Comparison of Unification Policies with Educational Policies.

<u>Periods</u>	<u>Unification</u>	<u>Education</u>
1945 - 50	Anti-communism and unification by force	No explicit objective of anti-communism education
1951 - 61	Establishment of an unified and democratic society	Anti-communism education
1962 - 71	Unification by peaceful way	Insufficient reflection of unification policy
1972 - present	Peaceful unification step by step	Conversion to positive unification education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ound in this analytical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1. The policies of national unification and of anti-communism education were not systemetically reflected in the curriculum of the anti-communism education.

2. The chang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were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s of the anti-communism education.
3.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of the anti-communism education were not described in concrete and behavioral terms.
4. Most of the textbook contents were emotionally toned and the emotionally toned contents were repeated at all the grade level.
5. The contents of intellectual stimulation for understanding the superiority of democracy over to communism, particularly to North Korea were obviously lacked and were not systematically presented.
6. The intellectual level of the contents was lower than the other textbook contents, and intellectual informations based upon the facts for comparison of both the systems of democracy and communism and of South and North Korea were lacked in the textbook contents.